

복음의 사람,
BLESS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Begin with Prayer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Listen with Care 경청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Eat Together 사귄 사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Serve with Love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Share your Story 전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물대풍상

The Well-Watered Garden

Vol. 102 | 2023. 06.



물대동상

통권 제 102호
The Well-Watered Garden

소통의 장

- 여는 글 04 운명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박창운 위임목사
- 목양부 06 우리 순 이야기(아빠 닮은 순)
박문호 안수집사
- 새가족부 08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09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 교회로
노광택 성도
- 12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혜리 성도
- 청장년부 14 청장년부를 아세요?
이상녕 안수집사
- 여전도회 16 우리 5여전도회, 신덕교회 봉사 다녀왔습니다
이경희A 권사
- 신임 교역자 소개 18 신임 교역자 인터뷰
황천호 목사
- 행정실 가족 소개 19 김경훈 행정실장
20 사공경 재정간사
21 권은하 서무간사
- 소식 22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6 사진으로 보는 교회학교
28 창립 130주년 기념의 해 행사사진
- 창립 130주년 기념 연재 31 우리교회에서 분립 · 개척한 교회(3)
6.25 특별 지면 36 6.25 전쟁 발발시 선교사들의 피난 서신
임성현 성도

삶과 신앙

- 우리 결의 이단 43 2023년, 이단들의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2]
탁지원 소장
- 신앙강좌 47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2] 신론
장규현 목사
- 51 알면 도움 되는 기독교 교파 이야기[2]
서성준 목사
-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56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57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 5분 독서코너 57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성지순례 기행문 59 이경희B 권사
- 신앙논단 65 '찬송'을 왜 해야 하나요?
우정복 원로장로
- 68 과거는 미래에 의해 다시 쓰인다[3]
이지원 청년

크리스천 문화

- 건강칼럼 71 발뒤꿈치가 아파요 -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서혜진 집사
- 73 우리 결의 "심리학"[1]
양선미 집사
- 세대 간 소통 77 우리 교회 주변 핫플레이스 소개[2]
김원진 청년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운명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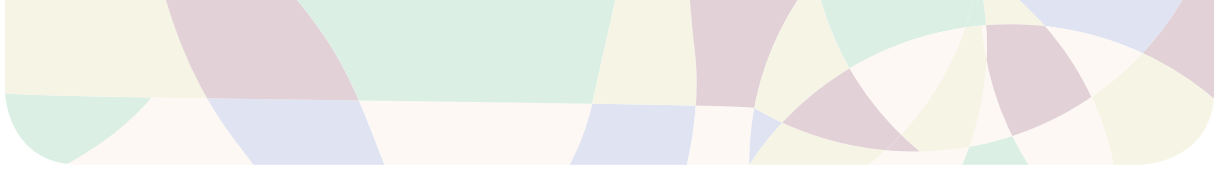


에스더서?

수요일 오전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한다. 에스더서!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기개가 너무도 유명해 오래전 성경학교 시절부터 줄곧 들었던 이야기인지라 한편으로는 친근감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곰곰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겨난다. 그 의문점이란 것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 말씀에,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에스더서가 들려 주는 이야기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픽션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 “어떻게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의 수장들을 불러서 180 일이나 잔치를 할 수 있나요?”라는 말부터 시작해, “왕이 부르는데, 그것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구요?”라는 것까지, 믿을 수 없다는 많은 이야기를 쏟아 낸다. 그러면서 못을 박는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구요!”하고 말이다.

운명전환

어, 그런데 어떡하나? 이렇게 문학작품으로 치부하려고 해도, 당대에는 이러한 류의 문학작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더우기 에스더서에는 바사의 왕궁과 관습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아하수어로 왕의 통치 초기에 국고를 맡은 자 중에 “마르두카(Marduka,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개를 떠올리게 한다)”의 존재를 보여준다. 물론 우리의 관심사는 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당혹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활동이 점점 더 느껴진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이름에 합당한 역사가 오롯이 그 정체를 드러내며 나타난다.



그중의 하나를 우리는 "운명전환(reversal of fortunes)"이라는 주제의 선명함 속에서 발견한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온전한 경배를 모르드개가 행하지 않자, 자신의 분에 못 이겨 모르드개와 더 나아가 유대인 모두를 몰살할 계획을 세운다. 거의 1년의 기간을 두고 모르드개와 그 백성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치우려 계획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운명의 전환을 일으키신다. 하만이 죽이려 하는 모르드개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도리어 하만이 자신의 계획에 당하며 망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 중의 백미는 장대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그저 없애려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다루기를 원했고 작은 자비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모르드개를 죽이면 그를 장대 높이 매달고자 다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법, 여기에서도 운명의 전환을 일으키신다. 장대 높이 매달린 이는 정작 모르드개가 아니라 하만이 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행한다. 마치 사사기에 나타나는 전형의 어구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만이 그러했다. 자신은 나라의 2인자이고, 무엇보다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으니 말이다. 모든 것에 으뜸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에 일침을 가한다. 하나님이 한 번 혼드시면 자신이 아무리 강하고, 부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모두 허무신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넌지시, 그러나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힘겨울 때, 그것도 가장 힘겨워 절망만이 남은 생이라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일러주신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지키고 계신다고 말이다! 우리의 운명의 전환을 일으키신다고 말이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 상황, 악이 판을 치고, 고단한 삶들이 연속되는 시절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배후에 여전히 흐른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도리어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운명의 전환을 일으키신다. 당신의 종들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 **출판동상**

우리 순 이야기

(아빠 닮은 순, 순장 : 박문호 안수집사)



2022년에 시작된 우리 순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로 이름을 〈아빠 닮은 순〉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장규현 목사님의 중매로 안정훈 집사님께서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안정훈 집사님은 저와 주일학교 때 항상 함께 지냈던 친구이기도 한데, 이번에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부분 순원의 아이들이 어려서 식구들을 떼놓고 모임 하러 나오기가 어려워 아직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매주 성령님의 임재와 뜨겁고도 깊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모임 때 박지운 집사님은 찬양 부장으로, 김영민 집사님은 기도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특히 기도 시간에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순서가 있는데, 김영민 형제의 차분하고도 논리정연한 기도 인도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힘들고 분주했던 한 주를 보내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정돈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 순모임이 매주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 김영민 집사 :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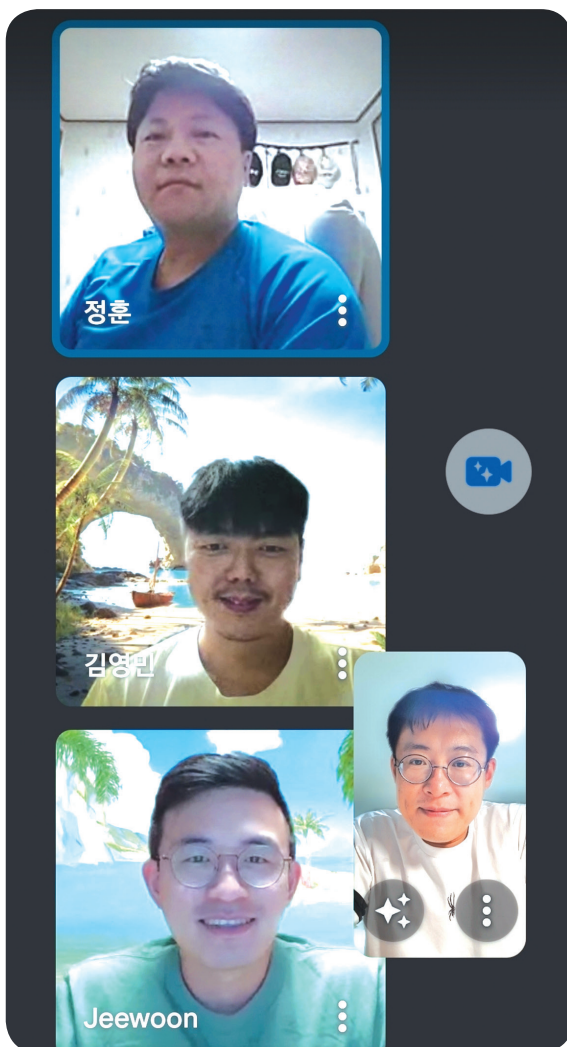
많이 닮은 박문호 순장님, 청년부 때부터 연을 이어 출산 후 아이들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박지운 집사님, 2023년이 되어 함께하게 된 안정훈 집사님과 매주 순모임을 가질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직장 휴무 스케줄 변동이 잦음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스케줄을 조정해 함께 모임을 가져주는 〈아빠 닮은 순〉 순장님과 순원분들의 배려에 이 시간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46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각자의 삶을 나누며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혼자일 때보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순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닮아 가는 아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박지운 집사 : 저는 매일 큐티를 하지 않지만, 청년부 때 하던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야만 할 것 같아 순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자신 없을 때가 많지만, 순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살아낸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나도

저들과 비슷해져야겠다 예수님과 비슷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모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안정훈 집사 :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부재와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 출퇴근하듯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에 염려하시던 어머니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에게 장규현 목사님을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순모임을 하면서 조금씩 예배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도록 성령님께서 감화를 주셔서, 눈물의 기도와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댄동산의 한 권을 빌려 사랑하는 어머니와 장 목사님,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모임에 임해주시는 순모임 형제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40여 년간 주일학교, 청년부, 청장년부를 거쳐 오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며, 각종 위기의 순간과 결정적일 때마다 탕자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불꽃처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한량없는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성령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진 작은 소명도 기쁘게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 모임 속에서 말씀으로 더 자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작은 물맷돌에 태산만 한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

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순모임을 사랑하는 박지운 형제, 김영민 형제,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 박문호 집사님, 모임 중에 나눠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큰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항상 함께 임재해 주셔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축복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순모임을 앞두고... | *물댄동산*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태경 _ 3교구 24구역



천소진 _ 3교구 11구역



이우성 _ 2교구 7구역



제상철 남지윤 _ 3교구 24구역



박보드레 _ 1교구 13구역



양송아 _ 1교구 24구역



윤지원 _ 2교구 2구역



차현준 김채경 _ 2교구 20구역



배주화 _ 3교구 2구역



고훈 _ 3교구 9구역



박인권 _ 1교구 24구역



박동란 _ 2교구 27구역



이하은 _ 2교구 28구역



곽태환 _ 3교구 16구역



구원자 _ 2교구 1구역



강규현 _ 2교구 33구역



윤길규 김나윤 _ 3교구 13구역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 교회로



노광택 성도

고등학교 입학식 날에 받았던 교과서 묶음 사이에 함께 있었던 작은 성경책이 생각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책 속에 깨알 같은 글씨로 신구약 66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책의 옆면을 물들이고 있던 붉은 색의 의미가 나를 위해 흘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일 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그 작은 책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젊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교목 선생님의 권유로 집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기독교 서클에 가입하여 봉사와 선교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의 열정과 열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시점에 찾아온 IMF 금융위기, 취업난, 결혼, 그리고 2세의 탄생 등은 저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치우치게 하였고, 점점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어두움은 저의 눈을 어둡게 하였고,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게 하였고, 결국 들보로 막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의 시대적 유행은 저에게 나름대로 작은 안심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표기한 이 용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일말의 신념을, 그리고 공동체를 떠난 것이 나의 탐심과 세상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변명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 혼자만의 ‘가나안’은 모순적인 삶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공동체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특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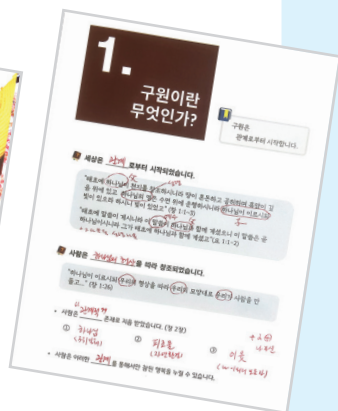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마치 끌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아직 한참 어리게만 보였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저희 부부를 앉혀 놓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꺼낸 첫마디는 “이제는 부모님께서 다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계속 외면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마주할 문제를 외나무다리에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없는 아이로 생각했던 자식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짧고 단순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이끌려 저희 부부는 바로 다음 날 주일에 청라언덕 위 대구제일교회 앞마당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차를 주차하고 교회 본당으로 걸어가는데, 주차 봉사를 하시는 장로 한 분이 초면인 저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교회 본당 대예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한편에 걸려있는 ‘다시 교회로’라는 문구가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의 주제가 ‘시편 139편’ 내용이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시 139:2~3)”는 내용에서 갑

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다(시 139:4)”의 히브리 원어가 가진 의미가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하는 생각도 다 아신다’라는 뜻이라는 설명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형제들과 떨어져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주부터 6주간 진행된 새가족부 새신자 교육을 통해 올바른 믿음의 기초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날 교육 내용이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며, 구원도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에서, 그동안 제가 공동체를 벗어나 살아온 개인적인 ‘가나안 신앙’의 한계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악과 사건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대구제일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신 새신자 환영잔치, 신앙사경회, 크리스마스 점등식, 성탄축하예배, 송구영신예배, 초신자의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참석한 세례·입교식 등등 모두 저에게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겔 36:26)’을 주시는 소중한 ‘관계’ 맺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부부 순모임 ‘두리하나’에 소속되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 일주일간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

고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던 여섯 가족이 매주 함께 모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귄(요일 1:3)’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에 갇혀있던 ‘가나안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광야 교회(행 7:38)’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받으며, 이 ‘인생 광야’를 건너 마침내 도달할 참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 율령동상



〈부부 순모임 ‘두리하나’의 여섯 가족〉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혜리 성도

작년 이맘때쯤 남산동으로 이사하셨던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던 그날 오후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새로 산 냉장고는 집에 잘 들어왔는지, 코로나에 걸린 남동생의 컨디션은 이제 좀 괜찮은지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평소랑 너무도 달랐습니다.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새 냉장고가 집에 들어와있으며, 남동생은 코로나에 언제 걸렸냐고 저에게 되물으시는 등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엄마가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저는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친정집에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최근에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적된 스트레스가 이렇게까지 엄마의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은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갑작스럽게 최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지속시간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인지기능과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다음 날이 되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하셨지만, 그날 엄마가 횡설수설하시고 드라마에서처럼 하루 동안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일은, 지금 다

시 떠올려 봐도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엄마는 뇌를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추적 관찰 중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강수연 배우처럼, 엄마도 언제 어디서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뇌동맥류가 터지거나, 또 기억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때부터 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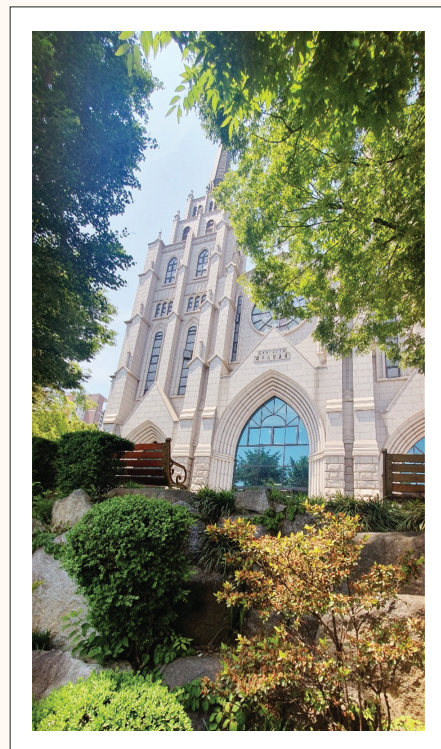
9년 전쯤 마음 맞는 친구들과 대구에서 청도로 귀촌해서 같이 집을 지어 함께 살고, 직장을 다니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남편, 12살 딸, 10살 아들과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누리고 있던 저의 잔잔한 일상에 그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생활 습관도 좋으시니까, 언제까지나 그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는 아직 젊으시지만, 온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어찌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슬프고도 긴박한 생각이 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여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친정집 근처의 교회를 알아보던 중 대구제일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박창운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유치원 방학 때 외할머니 손을 잡고 외갓집 앞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열린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울동을 하며 즐거워했던 기억, 중고등학생 때 공부에 방해된다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셨던 부모님의 반대에도 꾹꾹하게 혼자 교회에 다니며 어른이 되어 꼭 믿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 대학교 선교단체 IVF에서 수련회와 말씀연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했던 기억, 둘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반이 조기에 박리되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기억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남편과 아이들과 나만 누리고, 친정식구들은 어느새 내 마음에서 반 정도는 포기한 상태로,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하던 건강도, 사랑하는 가족도, 소중한 친구와 이웃도,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연도,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평범한 일상들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것처럼 여기고 감사의 마음

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던 담임목사님, 대구제일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섬겨주셨던 새가족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셨던 초등1,2부 선생님들, 제가 아플 때 기도 많이 해주신 구역장 집사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우리 시심순의 순장님과 순원님들께, 또 그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엄마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진 않았지만, 언젠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친정 식구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제일교회 예배당에 함께 손잡고 나오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 불행동상





청장년부를 아세요?



이상녕 안수집사
(청장년부 회장)

저희 청장년부는 교육3부 소속으로 35~55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부서입니다. 올해는 어울림(Harmony)과 평안(Shalo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함께 어울려 사랑과 평안을 만드는 공동체"란 표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둘째 주일 오후에 정기집회로 모이고 있으며 기타 소그룹 모임들이 일정에 따라 모이고 있습니다. 35~55세 나이는 교회나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이며 저희 또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주일 공예배후 교회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나이 터울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점에서 교제의 응집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젊은 신앙공동체, 친밀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열정으로 피곤한 주일 오후 시간이지만 다시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청장년부 회장을 맡으며 교회를 섬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로서 어떤 이상을 품은 청장년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모두 하나로 뭉쳐 자연스러운 신앙의 교제와 어울림이 일어나는 밝고 활기찬 교회 문화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들끼리만나는 서클이나 동아리 같은 모임이 아니라, 개방된 신앙 모임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청년공동체를 통해 교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 청장년부 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열린 예배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매월 첫 주 100주년 기념관에서 찬양-예배-기도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도 청장년부 회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사회적 이슈나 가정 내 문제 등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상반기 및 하반기에는 주암산 기도원을 방문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화합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그룹을 통한 화합"과 "청년1, 2부 후배들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소그룹에는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신앙 서적 나눔으로 구성된 "신앙 소그룹"과 스크린골프, 등산, 볼링, 그리고 청년 부부 모임으로 구성된 "친교 소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부부 소그룹은 결혼한 지 3~5년 이내의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후 청년 2부를 졸업한 부부들을 위해 만든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은 리더를 중심으로 정기적 나눔과 교제를 통해 신앙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또한 청년 2부를 졸업한 친구들을 청장년부 부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1, 2부와 화합"은 우리 교회 청년 1, 2부 동생들과의 교제와 화합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 되는 청년공동체, 그리고 함께 알아가는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리



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청년 1, 2부 예배에 청장년부가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작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청년의 날"을 정해서 청년 1, 2부와 청장년 부가 함께 하는 한마음 운동회도 준비 중입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청년의 날 운동회(명칭: 청바지)에 많은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랑과 섬김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는 교내외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합니다. 상반기에는 가창에 있는 장애인 엘림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6월에는 청장년부 주관으로 힐링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교내외 음악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찬양으로 평안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찬양과 선물, 손 편지 전달 등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5~55세에 해당하는 성도님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까지 포함하면 1,421명입니다. 현재 저희 청장년부 명단에 있는 회원 수는 전체 10%인 144명이이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

는 인원은 40~60명으로 4% 수준입니다. 올해는 새가족부와 지인들의 소개로 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참여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 소망하기는 1,421명의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에 친한 지인 중심의 관계 형성을 넘어서서, 교회 내 모든 청년 회원이 사랑으로 뭉쳐 서로가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월마라는 나무를 한 그루 들여왔습니다. 흔히 올마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그 초록앞이 참 예뻐니다. 인터넷에 올마에 대해 찾아보니 키우기가 엄청 까다롭다고 합니다. 올마는 햇빛을 좋아한다고 하여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마의 위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놓곤 합니다. 저 작은 올마도 사랑과 관심을 두고 바라봐 줄 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희 청장년 부에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장년부가 더욱 성장하여 교회 내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활기차고 살아 숨 쉬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움직임의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오듯이 저희 청장년부의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밝고 건강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령동상



우리 5여전도회, 신덕교회 봉사 다녀왔습니다.



이경희A 권사
(5여전도회 회장)

지난 4월 7일, 우리 5여전도 회원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군위 신덕교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정성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그 전날 함께 준비했던 선물 보따리를 교회 차에 싣고 이태연 담당 목사님의 기도 후에 출발하여, 웃고 떠드는 가운데 죄송하게도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서 도착하였습니다. 교회는 무척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밝은 모습의 손필숙 목사님의 환대를 받으며, 바로 본당으로 들어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위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묵상하며 계시록 3장 20절~22절 본문의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말씀으로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게 기쁜 날인가 슬픈 날인가?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날,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날,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선포되어지는 날,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날, 그 강도의 자리에 나를 대입 시켜보라..... 살아있으면 강도요 죄

수이지만 죽으면 낙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지 않는가!”

예배를 마치기가 무섭게 우리는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너무나 맛난 건강밥상에 환호하며 감사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수북한 나물 비빔밥을 서로 눈을 흘려가며 먹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전도회가 신덕교회를 돕기 시작한 것이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교회를 소개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는 소홀했던 터라 그날은 믿지 않는 인근 주민 130가구에 부활의 의미를 담아 작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들의 정성이 그 지역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친숙한 눈길로 바라보며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



졌다 싶었고, 유교와 불교문화가 만연한 시골 마을에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난해 두 분이 소천하셔서 지금은 성도 6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무하시는 손필숙 목사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찍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남편 목사님의 뒤를 이어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여 목사님 이십니다. 사랑과 열정이 많으신 유쾌한 분이셔서 돌아오는 저희의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속해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바라기는 많은 공동체에서 무너져가는 농·어촌 교회들을 더 잘 섬기고 도와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줄 감상문

♡ 정연수 회원: 목사님은 곳곳하게 서 있는 커다란 마을 지킴이 나무 같았어요. 손수 만드신 가지가지 나물로 점심을 차려주셔서 섬김의 귀감이 되심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 임희숙 회원: 남편의 뒤를 이어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손 목사님의 모습에서 나는 더 적으시나 저희를 맞이하시는 어른스러움에 감동했어요. 신덕리 마을 전 가구가

예수 믿는 마을 되기를 기대하게 하는 방문이었습니다.

♡ 조규정 회원 : 교회 모든 곳에 목사님의 정갈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작고 아담한 예배당에 마음이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권명자 회원 : 푸근한 웃음으로 맞이해주신 목사님, 예배와 식사로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의 배고픔을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 주님과 동행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불평등상





신임 교역자 인터뷰

황 천 호 목 사

2023. 05. 14. 부임

· 담당교구 및 부서: 2교구, 국내선교부, 친교봉사부,
홍보출판부, 청장년부, 남선교회

1. 자기 소개

저는 대구토박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대구남산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그 시절 5개교 친선체육대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우승 후보이자 경쟁 상대로 대구제일교회를 향해 비장한 눈빛을 발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때에는 아이들과 관덕정에 올라가 공과를 진행하면서 건물 사이로 대구제일교회를 볼 수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2.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햇살이 비치는 날에도 함께 하시고 거꾸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건네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제게 하나님은 맞고 있는 그 비를 함께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비가 그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칠 때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제 삶을 애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 저의 사랑하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저의 좋은 배필은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기독교교육학과 선후배 관계로 만나

2013년 겨울,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의 목회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여울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둘째 아들 아울은 올해 5살이 되었습니다. 여울이는 태어나고 100일 즈음부터 피부질환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고 건강합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잘합니다. 여울은 맑고 힘찬 물줄기처럼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아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조율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첫 음과 끝 음을 붙여 이름지었습니다.

4. 기도해주세요.

이제 대구제일교회에 부임하여 대구제일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역자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제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사랑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울릉동상





김 경 훈

행정실장

2019.12.15. 부임

1. 신앙 Story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 큰집, 작은집, 외갓집이 모두 한동네에 같이 있었던 부산의 농촌지역에서 태어나고 우상숭배가 심한 유교 가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지난 1970~80년대 저의 어릴 적과 청소년기 시절에는 가정형편이 가난했던 탓에 과자와 학용품을 선물로 주는 동네 작은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고 놀이터로 삼으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그 때부터는 가세가 기울고 학업의 짐 때문에 몇 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농촌 출신 저학력자이자 당시 신원보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곧 취직해야만 하였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쉽사리 찾을 수 없어 무작정 지방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첫 시험에서는 실력미달로 낙방을 하였으나 두 번째 시험에서는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한 것입니다.

그 후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제 여동생이 전도사님을 직장으로 보내어 점심시간에 개인 양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 러브 Story

내성적인 성격으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이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당시 저는 총각 집사로 나름 명성(?)을 떨치고 있던 시절, 같은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났어요. 맞선 상대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맞선을 본 상태였는데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 마음에 무척 들어 배우자로 내심 결정하였죠.

그리고 다시 한 번의 만남으로는 하나님 비전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나누고 세 번째 만날 때 프리포즈하기로 하였죠. 장소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기도원의 산속이었는데 제가 입이 둔하여 말로는 못 하고 직접 쓴 편지로 사랑 고백을 하였는데 그대로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장로 집안에서 불신 집안으로 어려운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룬지는 올해 25년째로 여전히 암사슴 같은 아내를 연모하고 있으며, 기업으로 물려주신 두 자녀는 하늘에 있는 것을 애착하고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3. 소망 Story(섬기는 부서에 대한 소망과 비전)

당연히 제일의 소망은 성도분들께 친절하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실 제공 서비스 만족도가 얼마인지 물어신다면 아주 부족해서 얼굴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답변드리지만,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기 분야에서 나름 실력자라는 유급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절대 나쁘지는 않지만, 교회사역은 실력과 경험 못지않게 무엇보다 뜨거운 영성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직원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기도 Story(2023년 기도제목)

첫째는, 외형적 교회의 위엄이 제일 압도적이듯 성령의 거룩함이 제일 압도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가족들(어머니)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출생동상**





사 공 경

재정간사

2021. 11. 23 부임

1. 신앙 Story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몇 살 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어릴 때 친언니를 따라 교회에 갔고,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자”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이 진짜로 눈을 감나 안 감나 실눈을 뜨고 몰래 살폈던 것이 예배의 첫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1:23)’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찬586장)’

최선과 최악의 중간 어디쯤에서 신앙생활 하던 저는, 마흔이 넘어서야 말씀과 찬송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노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눈 뜨기를 기다렸다는 듯 주시는 찬송들을 흥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변화된 일상에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 집니다.

2. 러브 Story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교회와 가정, 심플한 생활패턴 속에서 외부의 변화에 더디게 반응하다보니 반짝이던 청춘은 어느새 푸석푸석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며 그려낸 허상이기에 기도제목 리스트 한켠

에 자리만 차지하다 세월에 바스라져 사라졌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듯 이제는 함께 가자 손 내미시는 아버지와 함께 반짝이는 보석으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 소망 Story(섬기는 부서에 대한 소망과 비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43:19)’

한참을 미적거리다 행한 순종의 한 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즉각적인 응답하심으로 대구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간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일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한몸된 지체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여 대구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저와 행정실 직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기도 Story(2023년 기도제목)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계16:15)’

온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에 저는 매일 선교지인 가정으로 퇴근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에 제가 어떻게 보여 질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CCM 가사처럼 보여지는 예배 아닌 삶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저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불렙동상**





권 은 하

사무간사

2022. 01. 26 부임

1. 신앙 Story (내가 만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던 8살 무렵 교회에 가면 선물도 주고 과자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무심결에 따라간 교회는 제게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낯선 세상이었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신명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지금의 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세워지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오늘을 계획하고 계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여 년 후의 저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시간에 따라 저의 모든 것들이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2. 러브 Story

사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저의 유익을 좇는 못난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스스로 되묻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조금씩

못난 마음들을 내려놓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3. 소망 Story(섬기는 부서에 대한 소망과 비전)

처음 교회의 행정 간사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은 미묘하고 복잡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는 저의 성향에 맞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이웃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기도 Story(2023년 기도제목)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행정 간사 일을 하면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불평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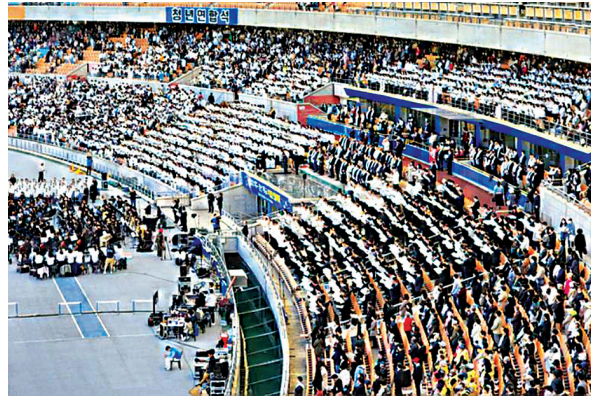




2023. 04. 07. 성금요일 예배



2023. 04. 09.
2023 대구·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



2023. 04. 09. 성찬식, 부활절 달걀 나눔



2023. 04. 16. 김태은 첫출석(부-김원석 성도, 모-정창희 성도)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3. 04. 09. 50사단 강철교회
부활절 감사예배(군학원선교부)



2023. 04. 16. 제2수송교육연대
이수교회 예배(군학원선교부)



2023. 04. 23. 우간다
윤재승 선교사 사역보고회



2023. 04. 30. 미얀마
박희양 선교사 사역보고회



2023. 05. 07. 캄보디아
이교육 선교사 사역보고회



2023. 05. 28. 몽골
양인모 목사 사역보고회





🔊 2023. 05. 05. ~ 06. 약령시 축제 전도(국내선교부 · 의료선교부)



🔊 2023. 05. 07. 유아 · 아동 세례식



🔊 2023. 05. 07. 경산진량 베델교회 외국인 진료 및 이미용 봉사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3. 05. 07. 온세대예배



🔊 2023. 05. 14. 어버이주일



🔊 2023. 05. 14. ~ 05. 21. 향존직 선거





2023. 05. 29. ~ 06. 02. 전반기 바이블 아카데미(전도서 특강)



2023. 06. 11. 순 헌신 예배



영아부



04. 02. 종려주일행사



04. 23. 블레싱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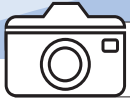
유아부



05. 21. 우리교회 발걸음 따라가요



05. 21. 만세운동을 기억해요



사진으로 보는 교회학교

유치부



04. 02. 종려주일찬양



04. 09. 부활절교사연극

초등 1부



04. 09. 부활주일



05. 21. 야외예배

초등 3부



04. 23. 달란트잔치



04. 23. 친구초청예배와 풍선&버블쇼

초등 4부



05. 20. 야외예배



청년부



05. 28. 쪽방 나눔 사역



창립 130주년 기념의해 행.사.사.진

교회 창립 1893년 4월 22일

2023. 04.16.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 사진전



2023. 04.16.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 주일 예배



2023. 04.16. 양인모 목사
파송 선교 임명식



창립 130주년 기념의 해 행사.사.진

교회 창립 1893년 4월 22일

2023. 04. 16. 홈커밍데이



2023. 04. 30. 청소년, 청년과 함께하는 찬양 CCM 콘서트



2023. 05. 07. 안의와 선교사 증손녀 부부(Gary and Jonna)
예배참석 및 기독교 역사관 방문



2023. 05. 28. 토피카 장로교회 담임목사(Sandra S. Brown)
주일설교 및 기독교 역사관 방문



2023. 05. 14. 초등2부 봄야외예배
2023. 05. 07. 청년부 역사관 투어
역사관 방문



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3)



권오현 은퇴장로

[머릿글]

대구 경북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1893년 4월에 전파된 이래 이 지역의 모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우리 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인근지역 사방으로 뻗어나간 신앙의 불길은 1903년 우매교회 분립을 시작으로 1916년 감삼교회 분립까지 교회 창립 20년 만에 무려 10곳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에도 교회 분립은 우리 교회의 전도 정책으로서 계속되었으며 1986년 서대구교회를 마지막으로 25곳 교회의 분립·개척이 일단락되었다. 또한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3곳의 교회가 분립되기도 하였다.

‘물댄동산 100호’ 특별 지면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 28곳의 설립이유와 과정을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여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 글이 대구제일교회의 위상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구제일교회 130년사편찬위원회

권오현

대구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교회 분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회의 분립이 시작된 주요 원인은 원거리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각 지역에 교회를 분산 설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구 인근 외곽지에 살고 있던 초대 교인들은 도시락을 준비하여 교회까지 수 십리 길을 걸어 주일예배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불편한 교인들을 위해 인근 각 지역에 교회를 분산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늘어난 초대 교인 1,0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좁고 열악한 시설의 예배당이였다. 다행히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1908년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분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 분립시킨 교회를 설립순서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7) 중앙교회



중앙교회(中央教會)는 1924년에 열세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던 1923년 이만집 목사 자치 파동의 여파로 생겨난 특이한 교회이며, 대구시 중구 서성로에 소재하고 있다가 북구 침산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자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교회로부터 제명당했으나 얼마 후 노회 파와 자치파의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평화를 표방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교인들이 중립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회원 학교 강당 등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종로에 가옥을 매입하여 중앙교회라 이름 붙이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노회에서 제명된 교인이므로 교회로서 승인받을 수 없게 되자, 우리 교회 당회에 중앙교회를 우리 교회로부터 분립된 교회로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중립파 교인 39명은 아래 과정을 거쳐 복권하고 분립이 이뤄지게 되었다. 교회분립 과정에 관하여 제401~403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 후 1924년 5월 24일 하오 5시에 본 당회가 박문찬 목사 사택에 회집하니, 회원은 목사 박문찬, 장로 박순조, 강만채, 강중하, 백신칠 제씨라.

리만집 일파 자치 교인으로 제명을 당한 이 중에

서, 중립으로 있던 41인이 전에 그릇됨을 회개하고 다시 장로교인으로 복권 시켜 주며, 그 회집단체를 노회에 교회로 승인 얻도록 청원해 달라는 것은 작기와 여히 동의 가결한다.

一. 중립파의 회집단체를 우선 장로교 원 입교인과 같이 승인하고, 복권은 노회의 허락으로 할 일.

一. 교회 분립하는 일은 노회에 청원하여 지정 허락을 받은 후 교회로 분립게 하되, 그전에는 본 교회 기도실로 둘 일.

一. 임시 인도인은 해 청원에 의하여 정광순, 김상원 양 씨로 할 일.

회장 박문찬, 서기 백신칠

주 후 1924년 6월 7일 하오 9시에 본 당회가 박문찬 목사 사택에 회집하니, 회원은 목사 박문찬, 장로 박순조, 강만채, 강중하, 백신칠 제씨라.

전 중립파로 원 입교인과 같이 받은 41인에 대하여 경북노회에 여좌히 청원해 주기로 동의 가결한다.

一. 복권에 대한 것.

一. 예배당 장소는 서 성정1정 목(西城町 一丁目)으로 정하고, 명칭은 중앙교회라 할 것.

一. 현재 41인 외에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교인을 얻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현재 장로교인으로서는 해 교회에 가지 못할 것.

一. 교회가 서 성정1정 목에 설립되면, 선교사 위철치씨를 목사로 허락게 할 것.

회장 박문찬, 서기 백신칠

14) 동운정교회 (현 중부교회)



중부교회(中部教會)는 1931년 우리 교회에서 열네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대구시 동운정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지명은 대구시 중구 공평동이다. 교회분립 이전인 1924년에 이미 우리 교회 소속의 동운정기도소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교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도소가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교인간의 불화도 생기게 되었다. 교회분립 시에 분립 구역은 시내 동편으로 정하였으며, 우리 교회 임시동사목사로 시무 중이던 임종하 목사가 부임하였다. 교회분립 당시에는 동운정교회(凍雲町教會)라 하였으나 1946년에 대구제2교회로 개칭하였다가, 1955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교단을 옮기면서 중부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교회분립 과정에 관하여 제410회 당회부터 제528회 당회까지 중에서 8차례에 걸쳐 당회록에 언급되어 있으며, 마지막인 제527~528회 당회 시에 분립을 가결하고 분립 구역을 상세하게 정하였다.

주 후 1924년 10월 13일 하오 8시 반에 본 당회가 남성정전도실 상층에 회집하니, 회원은 목사 박문찬, 림종하, 장로 박순조, 강만채, 백신칠 제씨라.

동운정 교인들이 동운정전도실을 수리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당분간 유한하기로 동의 가결한다.

회장 박문찬, 서기 백신칠

1931년 7월 4일 하오 9시에 본 당회가 임시에배당에서 회집하여 기도로 개회하니, 출석원이 목사 최재화, 장로 박순조, 장처중, 강만채, 천재추, 김병욱, 김상태 제씨라.

동운정 기도실에서 교인들이 분교(分敎)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청원대로 분교하여 주기로 가결한 후, 동 11시에 회장의 기도로 폐회한다.

회장 최재화, 서기 김병욱

1931년 7월 19일 예배 후 본 당회가 임시에배당에서 회집하여, 기도로 개회하니, 출석원은 목사 최재화, 장로 박순조, 장처중, 강만채, 천재추, 김병

욱 제씨라.

동운정교회 분립에 대하여 구역은 도립의원 서편 대로로, 공설운동장 정문으로, 조선민보 사전부청 앞으로, 전기회사 앞으로, 향교 앞으로, 칠성정 파출소로 앞으로 정하다. 동운정에 가서 광고할 위원은 강만채씨로 정함.

회장 최재화, 서기 김병욱

또한 중부교회 분립에 관하여 1931년 9월 30일 자 기독교신보는 분립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 동운정교회(凍雲町教會) 분립

오랫동안 남성정교회에 소속이던 동운정기도소는 이래 신자의 수가 80여 명에 달하며 자립(自立) 자양(自養)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남성정교회와 경북노회에서 해소에 교회분립을 허한바 즉시로 임종하씨가 임시목사로 부임해 열심히 목양하는 중 교회는 일익(日益)왕성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한다.

이상이 조선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전에 우리교회에서 분립한 14개 교회들이다. 당시 대구시내에는 제일, 서문, 남산교회 등을 3처교회라 하였고, 그 후 칠성, 중앙, 동인, 서남교회 등을 합하여 7처교회라 하여 교계에 큰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다.

15) 북문교회 (현 대구문화교회)



대구문화교회 옛 모습(현재 남구 이천동에 예배당 신축 공사 중)

북문교회(北門教會)는 1948년 우리 교회에서 열다섯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대구시 태평로 1가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희년 기념교회로 세워졌다. 그 후 문화교회(文化教會)로 명칭을 바꾸었고,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던 교회를 매각하고 현재의 동인동 1가로 이전하였다. 교회분립 과정에 관하여 제683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8년 6월 28일 오후 1시 반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회집하다.

50주년 기념교회 명칭에 대하여 토의결과 대구 북문교회라 칭하기로 가결, 김영태 조사를 전도인으로 파송 주재하게 하되 임시로 시무하며 또 본 교회에서 직접관리 협조하기로 하다.

회장 한병호, 서기 강신철

16) 장천교회



장천교회(長川教會)는 1954년 우리 교회에서 열여섯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선산군 장천면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교회 청년면려회의 교회 개척 사업으로 세워졌다. 장천교회 설립 과정에 관하여 제840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4년 2월 14일 상오 6시 반 임시 당회로 예배당 상층에서 회집하여 회장의 기도로 개회하다

청년회 사업으로 장천교회 설립 건축보조금 3만원 청구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주일예배 시 연보대 돌려서 나는 대로 보조하기로 하다.

회장 오태환, 서기 강신철

17) 상동교회



상동교회(上洞教會)는 1957년 우리 교회에서 열일곱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대구시 상동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내의 3개의 전도회가 주최가 되어 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상동교회를 설립하였다. 교회분립 과정에 관하여 제940회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7년 4월3일 하오 8시 반 임시 당회로 당회실에서 회집하여 회장 이상근 목사 기도로 개회하다

제일교회 60주년 기념 전도사업으로 3전도회(남장년, 여장년, 여청년전도회) 주최로 대구시 상동 256번지 116평 건물 2동을 15만원에 매입하여서 교회를 설립하니 대구상동교회라 명칭 하여 4월28일 오후 3시 개장식을 거행하기로 하다.

회장 이상근, 서기 강신철

18) 두산교회(현 정동교회)



두산교회(斗山敎會)는 1973년 열여덟 번째로 분립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와 삼덕교회가 연합으로 설립하였으며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전해인 1972년에 대지를 구입하였으며 이희완 강도사가 부임한 후 1974년에 예배당을 준공하였고, 1980년에 정동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회분립 과정을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72년 2월 27일 오후 8시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회집하다

개척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도부장 보고를 들음

1. 지역선정: 두산교회로 선정하다
2. 교역자 생활비 3만 원 지급하기로 하다(각 교회 1만 5천 원)
3. 현재 교회 건축 대지는 물색 중에 있음
회장 이상근, 서기 김명엽

19) 하양제일교회



하양제일교회(河陽第一敎會)는 교회 개척의 해를 선포한 제59회 총회(총회장 이상근)에서 300 교회 개척운동의 하나로 경산시찰의 요청으로 1974년에 열아홉 번째로 분립한 교회이며 경산시 하양읍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다음 해인 1975년에 박주묵 목사가 부임한 후 본격적인 개척전도가 이뤄졌으며, 헌신적인 활동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그 후에는 교회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필요시에 지원하였다.

1981년 12월 20일 하오 2시 당회실에서 연말당회 속회가 개최되다.

하양제일교회 보조를 위해서 3월 마지막 주일 헌금하기로 하다. 예산 1백만 원(부족하게 되는 액수는 경상비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회장 이상근, 서기 양봉수

불평등상

6.25 전쟁 발발시 선교사들의 피난 서신



임성현 성도¹⁾

소개글

지난 2023년 1월 4일 ~ 6일, 아버지(임병규 장로)와 함께 2박 3일간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의 네 번째 자녀인 조지(아담스 선교사의 셋째 아들)의 장남 Edward Ben Adams (이하 Mr. Adams)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국제학교의 설립자인 Mr. Adams는 1998년 10월과 2019년 9월에 가족들과 함께 대구제일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비록 한국에 직접 나올 순 없었지만, 아담스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자료가 일부 있다는 소식과 자료를 추가로 찾으면 대구제일교회 기독교역사관에 기증해 주신다는 말씀에 저희가 세도나에 위치한 Mr. Adams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네받은 여러 자료 중에서 아담스 선교사의 첫째, 셋째 며느리가 각각 가족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원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1950년 6월 25일 당일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의 피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미국에 있는 아담스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편지로 한국전쟁 발발 초기의 생생한 상황을 담은 소중한 자료입니다.

73년의 세월이 흐른 편지이므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간의 편지이기에 등장 인명이나 단어에 약자(略字)가 많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배경지식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각주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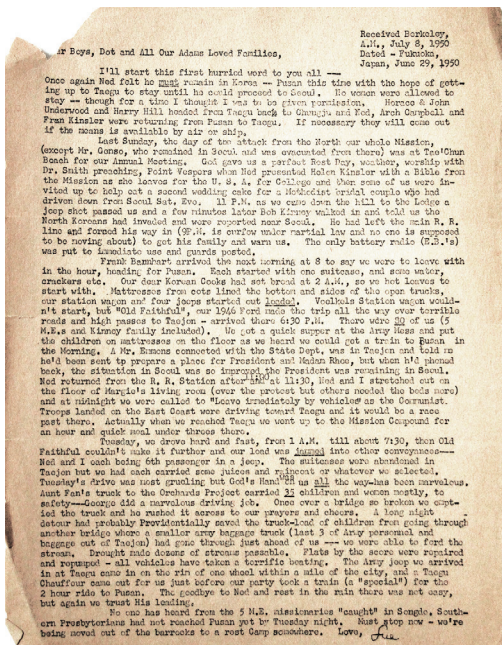
물댄동산에 처음 공개하는 이 편지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선교사들이 겪은 어려움과 생생한 상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복음을 들고 헌신적인 삶을 산 선교사들, 특히 아담스 선교사 가문의 헌신적 노력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1) 소개글작성 및 번역, SUNY Albany 영문학 박사과정



편지1 : Susan(=Sue) Comstock Adams²⁾

의 편지



버클리 수신됨

1950년 7월 8일

일본 후쿠오카, 1950년 6월 29일

사랑하는 아들들, 도로시³⁾, 그리고 모든 아
담스 가족들에게.

급히 몇자 적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 네드⁴⁾는 한국(부산)에 남기로 다시 한 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서울로 올라 갈 수 있
게 되기 전까지 대구로 가서 머무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도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허
락을 받은 줄 잠깐 착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떠나야만 했거든요. 호레이스
와 존 언더우드⁵⁾, 그리고 해리 힐⁶⁾은 대구에서
청주로 돌아갔고, 네드와 아치 캠벨⁷⁾, 그리고
프랜 킨슬러⁸⁾는 부산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중
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비행편이나 배편
중 이용가능한 편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지요.

지난 주일,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날, 서울
에 남아 있다가 거기서 탈출한 겐소 씨⁹⁾를 제
외하고, 우리 선교단 식구들은 선교사 연례회
¹⁰⁾를 위해 대천 해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
님께서서는 그날 더할 나위 없는 날씨와 안식일
을 허락하셨고, 스미스 박사님의 설교로 진행
된 예배, 그리고 석양예배¹¹⁾도 허락하셨습니
다. 석양예배 시간에 네드는 대학 진학을 위해

- James Edward Adams (한국명 안의와) 선교사의 아들 Edward Adams (한국명 안두화)의 부인. 즉, James E. Adams 선교사의 첫째 며느리. Sue와 다음 편지의 작성자 Margie (안의와의 셋째 아들 George의 부인)는 동서지간.
- James E. Adams의 셋째 자녀(딸) Dorothy Dick Adams. Sue에게는 시누이.
- Edward Adams(=안두화)의 애칭.
-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사람들로 추정됨.
- Harry James Hill,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1917-1961년 서울지역 사역.
- Archibald Campbell (한국명 감부열, 1890-1977) 선교사. 1916-1960 한국 사역. 계명대학교 초대학장을 지냄.
- Francis Kinsler (한국명 권세열, 1904-1992) 선교사. 성경구락부(Bible Club) 사역으로 잘 알려짐. James E. Adams의 셋째 자녀(딸) Dorothy Dick Adams. Sue에게는 시누이.
- 한국 선교부에서 1908년 이후 재무 책임을 맡았던 존 겐소(John F. Gensou),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사람들로 추정됨.
- 제58차 한국선교부 연례회 겸 가족 수양회. 당시 52명의 선교사들과 27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고 함. <http://m.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2>, 이종만. "한국전쟁기간 미국 북장로교회 한국선교부의 활동: 옥호열(Harold Voelkel) 선교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p.2058 Archibald Campbell (한국명 감부열, 1890-1977) 선교사. 1916-1960 한국 사역. 계명대학교 초대학장을 지냄.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06> "울창한 해송림에 둘러싸였던 대천수양관에는 한 때 '석양예배'라는 것이 있었다. 주일 오후 해가 기울 때쯤 기암괴석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으로 하나 둘씩 모여든 선교사들이 서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예배와 친교를 나눴던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헬렌 킨슬러¹²⁾에게 선교단을 대표하여 성경 한 권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토요일 저녁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온 감리교 신혼부부의 두번째 웨딩 케이크를 먹어 치우는 일에도 초청을 받았지요. 밤 11시 경 언덕을 내려와 숙소로 돌아올 때, 지프차 한대가 우리를 지나쳐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잠시 후 밥 킨니가 와서 북한군이 침공했으며 서울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계엄령 하에 밤 9시부터 통금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아무도 이동해서는 안 되었지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그는 그 시각에 경부선¹³⁾을 벗어나 대천 해변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에디가 가지고 있던 배터리 라디오¹⁴⁾를 즉시 작동시켰고, 불침번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프랭크 벤하트가 와서 지금부터 한 시간 내에 부산으로 떠나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각자 가방 하나와 물 약간, 크래커 등등을 챙겨 들었지요. 친절한 한국인 요리사가 새벽 2시에 빵을 준비해 주어 우리는 따뜻한 빵과 함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의 매트리스를 트럭 바닥과 양옆에 깔았

고, 스테이션 왜건¹⁵⁾, 그리고 4륜 지프차에 짐과 사람을 가득 실은 채 출발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보켈 선교사¹⁶⁾의 스테이션 왜건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1946년식 포드 "올드 페이스풀"은 대전까지 험난한 도로와 가파른 고개를 넘는 일정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도착하니 저녁 6시 반이더군요. 당시 우리 일행은 다섯 명의 감리교 선교사¹⁷⁾ 및 킨니 가족들을 포함하여 모두 서른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영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했고, 다음날 부산행 기차를 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들었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당시 국무부와 연줄이 닿은 에몬스 씨가 대전에 와 있었는데,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몬스 씨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그가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서울의 상황이 호전되어 대통령은 서울에 남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밤 11시에 네드는 기차역에서 돌아왔고 11시 30분에 네드와 저는 마지¹⁸⁾의 거실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다른 이들이 침대에 누우라고 강권했지만, 저희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침대에 누울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이어 자정에 우리는 "곧장 차

12) <https://www.fpceh.org/rev-kinsler>. 헬렌 킨슬러는 프랜시스 킨슬러 목사의 장녀로, 한국에서 출생함. 1942년에 10세인 것으로 나오므로 1950년 당시에는 18세임.

13) "간선철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Margie의 편지 내용을 참고할 때, 경부선으로 보임.(밥 킨니는 당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던 중이었음).

14) Margie의 편지를 보면, 자신의 첫째 아들 Eddie가 소유한 라디오에 대한 언급이 나옴. 아마도 Margie의 첫째아들 Edward Ben의 약자로 추정됨.

15) 좌석을 떼 내어 짐 싣을 공간을 만든 차.

16) Harold Voelkel (한국명 옥호열) 선교사. 자세한 내용은 이종만 논문 참조.

17) M.E.s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Methodist Episcopal의 약자로 보임. Sue의 편지 마지막 문단에도 5 M.E. missionaries들이 송도에서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리교 선교사들로 추정됨.

18) 다음 편지의 작성자 Margie (안의와의 셋째 아들 George의 부인).



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
니다. 공산군이 동해안에 상륙하여 대구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고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이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대구에 도착해서 선
교사지구로 올라가 한 시간 가량 나무¹⁹⁾ 아래
에서 요기를 했습니다.²⁰⁾

화요일, 우리는 새벽 한 시부터 열심히 차
를 몰고 내달렸습니다. 오전 일곱시 삼십분²¹⁾
이 되자, 올드 페이스풀은 도중에 펴졌고, 우
리는 짐을 다른 차에 쭈셔 넣었습니다. 네드와
저는 결국 두 대의 5인승 지프차에 각각 여섯
번째 탑승자가 되었습니다.²²⁾ 여행 가방은 대
전에 버리고 왔지만, 우리들 각자는 약간의 주
스와 우비, 또는 각자가 선택한 물품들을 조금
씩 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이날의 피난길은
가장 고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
길이 여정 내내 함께하셨습니다. 팬 이모님의
오차드 프로젝트를 위한 트럭은 35명의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었고,
조지는 트럭 운전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한
번은, 트럭을 비우고 모두의 기도와 환호 속에
심하게 망가진 다리를 달려 넘은 적도 있었지

요. 또한 밤중에 길게 우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덕택에 한 트럭 가득 찬 아이들이 다른
다리를 건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직전에 대전에서 세 명의 군 관계자들과 짐을
마지막으로 싣고 나오던 작은 군용 수송차가
지나갔던 그 다리 말입니다.²³⁾ 우리는 결국 그
개울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가뭄 덕택에 수십 개의 개천들이 말라 있었
기 때문이지요. 다수의 타이어 펑크가 있었으나
수리하여 바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차들이 꽤나 혹사를 당했습니다. 대구에 도착
할 때쯤, 1마일 정도 남겼을 때 우리가 탄 군
용 지프차의 한쪽 바퀴는 다 드러난 휠로 겨
우 달리고 있을 정도였지요. 2시간 걸리는 부
산으로의 특별 편성편 열차가 오기 직전, 우리
는 대구의 운전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열차에서 작별을 나
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송도에서 붙잡혔다는 5명
의 감리교 선교사들의 소식에 대해 들은 바
는 없습니다. 남장로교회 사람들은 화요일 밤
까지 아직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줄여야겠습니다. 우리 일행이 막사²⁴⁾에
서 군부대 내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네요.

사랑을 전하며, 수.

19) 편지 원문에는 three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tree의 오타로 보임.

20) "실제로 우리는~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시간 순서 및 문맥상 그다음 문단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같음 (전보 전 달 과정에서 오류로 추정).

21) 오전 오후인지 나와있지 않지만, Margie의 편지 내용을 볼때, 오전으로 보임 (대구에는 오후 3시 30분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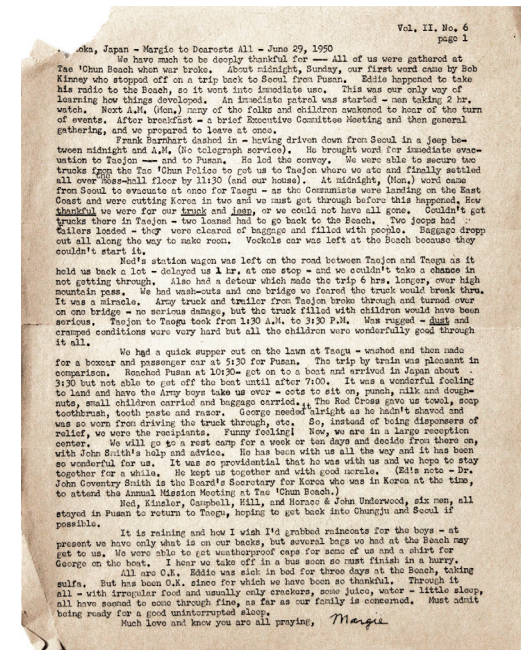
22) 지프차가 보통 5인승인데, 아마 문맥상 5인승 지프차에 정원 초과해서 탔다는 것으로 보임. Margie의 편지를 참조 하면, 대전에서 출발한 지프차가 두대였던 것으로 보임.

23) 이어지는 Margie의 편지를 보면, 이 육군 트럭이 다리를 건너다가 전복되었다고 나옴.

24) 원문의 barrocks는 barracks의 오타로 보임.



편지2 : Margie(마지)의 편지



일본, 후쿠오카
사랑하는 모두에게, 마지²⁵⁾.
1950년 6월 29일

전심으로 감사드릴 일이 많네요. 전쟁이 일
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대전 해변에 모여 있었
습니다. 주일 자정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
가다가 우리에게 들린 밥 킨니에게서 첫 번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디²⁶⁾가 해변으로 올 때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즉각 라
디오를 작동시켰습니다. 라디오는 일이 어떻
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창구였습니
다. 남성들은 2시간 교대로 즉각 불침번을 서
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일어나 사건의 전모를 듣

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간단한 지도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 인원 모임이 있었
으며, 우리 모두는 즉각 출발 준비를 하게 되
었습니다.

아침에 프랭크 밴하트가 뛰어 들어왔습니
다. 전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서울에서
지프차를 타고 자정에서 새벽까지 차를 몰아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즉각 대전, 그
리고 부산으로 피난 가야 한다고 알려왔고 피
란 행렬의 선두에서 호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는 대전 경찰서에서 대전까지 타고 갈 두 대의
트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
여 우리는 식사를 했고 밤 11시 30분에는 우
리 집과 병영식당에 흩어져 각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자정쯤, 모두에게 즉각
대구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서울에서 떨어졌습
니다. 공산군이 동해안으로 상륙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남한이 곧 둘로 나누어질 것이기
에, 그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
다. 우리에게 트럭과 지프차가 있었던 것이 얼
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두 함께 떠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대전에서
는 트럭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빌렸던 두 대
의 트럭은 모두 대전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
니다. 두 대의 지프차에는 짐을 가득 실은 트
레일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곧 짐을 치우고 사
람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공간을 확

25) George J. Adams(James Adams'첫째 아들)의 아내인 Margaret Roberts Adams.

26) 작성자 Margie의 첫째 아들 Edward Ben Adams.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짐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보켈 선교사의 차량은 시동이 걸리질 않아 해변에 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네드의 스테이션 왜건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하던 중 버리고 왔습니다. 한 번은 차가 멈췄는데 한 시간이나 일정을 지연시켰지 뭐니까. 반드시 대구로 내려가야 했기에 또 한 번 위험을 무릅쓸 순 없었습니다. 또한 높은 고개를 넘어 돌아가느라 6시간이나 일정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곳도 있었고, 다리 한 곳에서는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지요. 대전에서 온 군용 트럭과 트레일러가 다리를 돌파했지만, 전복되고 말았거든요.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가득 찬 트럭이 그랬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새벽 1시 30분에 대전을 출발해, 대구에는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먼지에 비좁은 공간 때문에 매우 고된 일정이었지만, 모든 아이들은 놀랍게도 일정을 잘 견뎌 주었습니다.

대구와 잔디밭에서 급히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씻고 나서, 5시 30분에 부산으로 가는 화물기차와 객차를 타러 갔습니다. 열차 여행은 이전의 여정에 비하면 무척이나 쾌적했습

니다. 부산에 밤 10시 30분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일본에 3시 30분쯤 도착할 수 있었지만 7시가 될 때까지 배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²⁷⁾. 땅을 다시 밟고 군인들이 우리를 데려갈 때는 날아갈 듯 했습니다. 앓을 수 있는 간 이침대와 주스, 우유, 도넛도 있었고, 군인들이 작은 아이들과 가방도 들어 옮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적십자에서 나와 우리에게 타월, 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조지²⁸⁾는 트럭을 운전하느라 매우 지쳐있었고, 그동안 면도도 못했기 때문에 면도기가 꼭 필요했었지요. 즉, 우리가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대신,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느낌이 묘하더군요! 이제 우리는 넓은 리셉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후에 휴양 시설로 가서 일주일이나 열흘 쯤 머무르고 존 스미스 씨의 도움과 조언을 따라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스미스씨는 우리와 줄곧 함께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를 우리 곁에 붙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그가 우리와 더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덕에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의기투합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의 덧붙이는 말 - 존 코벤트리 스미스 박사는 당시 한국 담당 이사회 간사였고, 대천 해변의 연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이었음)

27) 새벽 3시 30분인지, 오후 3시 30분인지는 불명확함. 19) 다음 편지의 작성자 Margie (안익와의 셋째 아들 George의 부인).

28)작성자의 남편 George J. Adams(안익와 선교사의 셋째 아들)로 추정. 21) “실제로 우리는~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시간 순서 및 문맥상 그다음 문단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같음 (전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로 추정).

네드, 킨슬러, 캠벨, 힐, 그리고 호레이스와 존 언더우드, 이렇게 여섯 명은 대구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에 남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청주, 그리고 서울까지도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비를 챙겨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으로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밖에는 없지만, 대천 해변에 두고 온 몇 개의 가방들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에서, 방수/방풍 모자를 몇 개 얻을 수 있었고, 조지를 위해 셔츠 한 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니, 편지를 급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모두들 괜찮습니다. 에디는 해변에서 3일간 앓아누워 설파제²⁹⁾를 먹고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간의 크래커와 주스, 물만 먹고 비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일정 내내 잠은 부족했지만, 이 모든 기간 동안 모두들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은요. 저는 이제 방해받지 않고 폭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넘치는 사랑을 전하며, 마치. | 불령동상



〈 6.25전쟁 발발 12시간 후 한국 선교부 가족 일행 〉

29) 항생제의 일종.

외부 기고문_우리 곁의 이단

2023년, 이단들의 진화하는 포교전략과 대응 방안2

본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2]



작성 _ **탁 지 원** 소장

성결대학교 신학과,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Th. M) 졸업

전 한국기독교잡지협회 회장

현 월간 현대종교 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백석대학원, 한세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신대원 등

현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 코스타 강사

이단들은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단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다. 요즘 이단들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으며,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이나 캠프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도 한다(하나님의 교회 등). 요즘 교육 흐름 중 하나인 대안학교에 보내고는 싶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쉽게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가격을 싸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모들의 원하는 것들에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 초등학교 앞에서는 학용품과 선물 공세를 펴며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5여 년 전부터 초등부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문의와 제보를 받고 필자의 월간 <현대종교>에서 ‘어린이(초등학생)와 이단들’이란 제목으로 집중 취재를 하기도 했었다. 여러 이단이 아이들조차 예외로 두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이젠 영적인 낯선 사람과 길 조심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름성경학교 등을 준비하며 이단 교육을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많은 이들의 관심 어린 연락을 받고 있어서다.

그렇다! 아이들에게도 이단 교육은 가능하다. 민감하지 않고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평생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이단 교육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교사와 어른들의 사고가 문제이리라. 아무튼 이단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절대로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시대가 영어 등 어학이 꼭 필요한 시대이니 외국어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일도 많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포교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 아예 이단들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있고(그런 경우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영어도 잘 가르치고 등록비가 저렴한 편이며, 또 자기들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수업료의 10%를 깎아주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밖에서 둘씩 짝지어 다니며 영어를 무료로 가르친다고 다가오는 몰몬교 교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우로 대표자나 간부들이 이단에 속한 경우(이단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은 아니나), 간접적인 영향력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유명한 Y 영어교실 등이 거기에 속한다. 후자의 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그 스타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포교로 연결하기도 한다. 부디 수많은 이단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공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이단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이젠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아울러 교도소나 농어촌 지역도 예외는 없다. 교도소는 폐쇄적인 부분이 크기에 버겁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한 포교가 살갑게 진행되고 적극적일 때 미혹의 영향력 또한 작지 않다. 모든 교도소마다 이단 포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도 사역하는 동안 교도소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재소자들을 통해 이단의 미혹이 심각하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교도소 선교 관계자들이 이단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한다.



이렇듯 어느 선교든 간에 이단에 대한 무관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차제에 농어촌과 해외 선교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시대가 바뀌어도 이단 정보의 공유는 늘 필요한 부분이니 이단 정보와 자료들이 고향 교회를 포함해 각 교회가 교제하고 있는 농어촌교회와 선교지에도 잘 나뉠 수 있었으면 한다. 교도소에서는 도움을 크게 베풀어주는 교회(성도)가 있다고 해도 그들의 배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도서 반입과 성경 공부의 제안은 그 단체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무조건 금물이다. 농어촌교회와 해외 선교지 역시 후원의 맘을 전해주거나 관계를 통한 도움의 약속을 해준다고 해도 그 단체, 교단 등의 배경을 먼저 확인해야만 한다.

경제와 예방, 깨어 근신함, 그리고 지피지기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이 이단 문제다. 평소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이단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그 문제가 나와 이해관계가 생기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 투사가 되어 열심히 싸우긴 하나 그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그래서 가끔 필자는 반어적이긴 하나 신천지 등의 이단에 감사할 때도 있다. 그 이단들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는 상당했으나 그들 때문에 교회들이 매우 커다란 경각을 안고 간절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이단의 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서야 쓰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성경 말씀에 이미 잘 나와 있다. 그 본질적 말씀을 토대로 각 교단의 이단들에 관한 연구 결과물들, 또 이단 연구 단체들의 정보들을 통해 분명한 ‘지피지기’가 이뤄진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될 것이다.

마무리하련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더불어 각 단체의 핵심교리를 몇 가지만이라도 파악하고, 날마다 바뀌는 전략들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함이 필요하다. 또 교주 자신을 신격화, 우상화한다든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며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성경의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때, 정통 교회를 강도 있게 비난하며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선은 무조건 이단성이 있다는 의심을 두고 섬기는 교회 교역자나 이단 전문가들에게 문의·상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나 기도원, 집회 등이 있다거나 신앙 좋은 선교사들이나 교역자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섬기는 교회나 교역자들이 모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절대로 관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단들이 만든 영적 불량식품(일화 맥콜, 삼육두유 등)에 대해 잘 알고 나누길 바라며, 지역 이단들의 위치 파악과 더불어 주보에 이단들의 정보를 매주 담아 나누는 것과 이단 관련 서적들과 동영상 파일 등을 비치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이단 세미나를 열었으면 한다. 또 (이단들이 버거워한다는) 교회나 학교 안에 이단 대책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이단 대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금상첨화겠다. 신천지 문제에는 열심히 대처하고 있으나 다른 이단에 관해서, 그리고 이단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 사역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교단, 또는 각 교회에서 약간의 물질과 관심만 있다면 이단에 빠진 이들을 회복, 치유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역시 구체적인 관심을 바란다. 이러한 일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헌신하고자 하는 교단과 교회가 많아진다면 한 달에 만 명이나 되는 그 귀한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움을 대폭 줄여갈 수 있을 것이고, 이단에 빠진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량주의로 타락해 가는 작금의 상황에 이단은 더욱 강한

미혹의 손길을 뻗치며 능란한 전략, 전술과 위장된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대처를 제대로 이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며, 바로 가르치자.”의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늘 위기를 귀한 기회로 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의 심정으로 주님 주신 명령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마지않는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을 기대하며...’ | 불평등상

- 다음 호에 이어 -

부제

1. 서론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1]
2. 본론 :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2]
3. BIG 3 이단 :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4. BIG 3 이단 : 구원파와 결론

- 관련 성경 구절 :
요한1서 4:1~6, 마태복음 24:5, 36

이단을 이기는 기독교 교리[2]

신론



장규현 목사



지난 시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왜곡되고 파편적인 성경해석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 통독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바IBLE 아카데미와 같은 성경 강좌를 통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번에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신론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신론은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신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관의 중심에는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적인 신관입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

의 존재를 서술하는 신비이기에,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유일신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출발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출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내적인 관계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삼위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삼위의 내적인 관계와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하기에, 인간으로서 인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사변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에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들을 풍성하게 기록하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을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가 인간에게 언제나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인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경험된 하나의 현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접근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짐으로 두 방법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접근할 때는 경세적 삼위일체로 시작하여, 그에 근거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함께 이해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신천지의 주장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성부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초림 시대의 목자일 뿐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성령은 범 죄하지 않는 천사를 비롯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을 총칭하는 것’일 뿐, 인격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성경공부 과정에서는 초기에 선악 구분을 가르치며 왜곡된 하나님의 개념을 주입합니다.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의 어디에 나오느냐고 질문해 옵니다. 또한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것이냐고 질문하며, 나아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면 아버지(성부)가 아들(성자)이란 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신천지의 논지는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보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이단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 세 개의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신천지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림 시대 약속의 목자로 믿습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약속의 목자를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을 첫 약속의 목자로,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첫 언

약의 목자라는 주장을 하며,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신약의 예언을 이룰 새 언약의 목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보혜사를 영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혜사(保惠師)를 한자 뜻대로 풀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 정의합니다. ‘스승 사(師)’라는 글자를 근거로 이들은 이 시대의 보혜사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보혜사를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 시대의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시대에 보혜사이며,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약속된 목자를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짧은 지면에 함축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논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해서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 공동체성

우리는 삼위일체를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숫자적으로 ‘하나’의 본질이나 신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신천지의 교묘한 질문에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3과 1을 동일 평면

에서 이해하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삼위와 일체를 숫자로 이해하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위일체의 핵심은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는 숫자가 아니고,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는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삼위의 공동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를 사용합니다. 이는 상호 내재적, 순환적, 침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상호 교제 속에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각 위격의 고유성을 드러내십니다. 성부가 천지창조의 행위를 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피조세계에 임하십니다. 최근의 신학적인 경향은 각 위격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모든 사역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되어 이해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내기 힘든 영역이기에, 이단적인 교리가 많이 파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불멸동상**

지금까지 기독교 신관의 중심에 위치한 삼위일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지면 안에 담아내기엔 너무나 큰 주제이기에, 왜곡

알면 도움 되는 기독교 교파 이야기 [2]

한국 감리교에 대하여



서성준 목사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이다. 물론 가장 크다는 의미는 교세(성도의 수)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며, 장로교와 함께 한국 개신교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한다면 감리교이다. 한국교회사의 첫 발걸음에서부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교회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역할은 한국의 근대사회에 큰 영향을 남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로교인 우리의 입장에서 타 교단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혹은 타 교단에 대해 깊이 관심을 두거나 연구하지 않고서는 타 교단 감리교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 된다(원고를 기고하는 필자 역시 매우 무지했다). 그래서 감리교는 어떤 교단이며, 한국교회 안에서 감리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한 현재 주소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감리교 기원과 특징

감리교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존 웨슬리(1703~1791)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실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는 하나의 교파, 교단의 개념이 아닌 영국 국교회, 성공회 내에서 일어난 신앙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웨슬리의 후계자들에 의해 미국에서 먼저 교단이 형성되었고 18세기 말이 되어야 영국에도 교단으로 만들어졌다.



존 웨슬리

영국에서 웨슬리의 신앙 운동은 당시 산업 혁명으로 인해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도시 빈민의 문제, 사회적 가치관 붕괴 및 타락 등을 맞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대륙의 계몽주의의 큰 영향력이 영국에서도 일어나면서 이성과 과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로 인해 합리주의적 신 이해인 이신론(理神論, deism)¹⁾이 만연되었고, 기독교의 신앙적 체험, 신비적 경험은 무시되기 시

1) 신을 세계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계시나 기적을 부인하는 이성적 종교관

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는 사변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고 당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사회적 하층계급에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계에도 그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던 시기에, 감리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기독교적 경험(체험)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존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써 사제 안수를 받았고, ‘신성클럽’이라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감리교의 시작이었다. 대학 캠퍼스를 시작으로 노방 설교활동을 통해 많은 추종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신앙 운동은 말씀 사역 외에도 교도소 방문 선교, 고아, 과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모금과 선교(자선 설교) 등 오늘날 감리교라고 말하고 특징 지을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실 감리교가 발흥 되던 배경 자체가 이성과 합리주의의 강력한 흐름과 빈민, 고아 등 사회적 어려움이 만연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었기에, 교회 회복을 염원했던 웨슬리의 신앙 운동의 방향성은 참 기독교란 단순히 교리와 전통을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진정한 신앙(중생의 체험, 성령 체험)과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며 등장한 신앙 운동이다.

이와 같은 감리교의 특징은 감리교 신학에서도 잘 드러난다. 선제적 은총, 의인(칭의), 성화, 완전 등의 교리와 교리 못지않게 실천(선행)을 강조하는 감리교의 독특한 신학이자

교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감리교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장로교와 비교하여 소개한다면, 감리교는 대부분의 개신교를 공통된 신조와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칼뱅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감리교는 신앙에 대해 사회와의 관계에 드러나도록 한다는 특징처럼 선행과 성화의 강조라는 교리적 특징을 따라 사회에 대한 봉사와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감리교의 특징은 이후 소개할 한국 안에서의 감리교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감리교의 조직에서도 그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 감리교의 조직을 가지고 설명해보면, 장로교와 동일하게 ‘당회’라는 개교회의 조직이 있는데 감리교에서의 당회는 장로교의 ‘공동의회’로 볼 수 있다. 담임목사를 의장으로 두어 1년에 1회 결산 및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한다. 다음 조직은 ‘구역회’로서 개 교회 1개 이상과 구역자와 장로, 권사, 각 부서장 등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조금 독특한 점은 ‘구역회’가 장로교의 ‘당회’와 ‘시찰회’의 중간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개 교회의 사안에 대해 개 교회 또는 지방회에 속한 다수 교회의 행정 등에 대해 감리사가 영향을 행사한다. ‘지방회’는 장로교의 ‘시찰회’의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으로 묶여 있고, 의장은 ‘감리사’라고 하여 장로교의 ‘시찰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조직에서 감리교의 ‘장로’에 대해 안

수를 진행한다. 또한 장로교의 ‘노회’의 성격을 띤 ‘연회’ 조직을 구성하는데 장로교의 노회보다 범위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라 하여 장로교의 ‘노회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목사’ 안수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의 ‘총회’처럼 감리교에도 ‘총회’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고 행정, 입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감독회장’이라는 장로교의 ‘총회장’의 개념의 의장을 두고 있다. 감리교의 조직을 간략하게 나열해보면 당회-구역회-지방회-연회-총회(장로교: 당회-시찰회-노회-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장로교와 달리 감리교는 평신도(장로, 권사 등의 직분자)는 대표로서 조직의 회의에 참석할 권한은 있으나 의장, 부의장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감리교의 기원과 특징이라 볼 수 있겠다.

한국 감리교 역사와 활동

한국 감리교의 시작은 1882년 한미 수교조약과 정치 외교적 여건, 한국 국내의 정치 사회적 정황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감리교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국내외 선교를 위한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감리교회의 감리회 선교부와 해외 여선교회, 남감리회 선교부를 필두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

1883년 매클레이를 시작으로 개화파 김옥균의 주선으로 고종을 알현하고 한국에서의 의료, 학교 사업의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의료선교사 스크랜턴²⁾, 여성 교육 선교사 스크랜턴 대부인(메리 스크랜턴)³⁾,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⁴⁾가 한국에 파송되어 들어온다. 스크랜턴은 장로교 선교사 알렌과 함께 광혜원에서 일하다가 1886년 정동병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1886년 아펜젤러는 최초의 서구식 학교 배재학당을 설립했고, 스크랜턴의 모친은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교육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동시에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들은 장로교 선교사들과 서울연합교회를 시작했고 1887년 10월 9일에 한국 감리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벤엘에배당’을 정동에 설립하였다. 이후 1899년 교인은 전국적으로 2,500명이 넘



윌리엄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헨리 아펜젤러

2) 윌리엄 스크랜턴(1856~1922)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로 서울 시병원과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을 설립하였고 전역기를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다

3) 메리 스크랜턴(1832~1909) 윌리엄 스크랜턴의 모친. 한국에 온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감리교) 여성 선교사. 이화학자대학교 · 이화학자고등학교 · 이화학자외국어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과, 매향중학교[2] ·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의 전신인 삼일소학당을 설립했다

4) 헨리 아펜젤러(1858~1902) 1885년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미국 감리교(북감리회) 선교사. 최초의 근대사학인 배재학당(현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을 세운 설립자이며, 구한말 한반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



서울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 벨기에배당

을 만큼 성장하였다. 한편 미국의 남감리회는 개화파 윤치호의 제안으로 1895년 중국에 있던 선교사 리드가 내한하면서 시작했고, 경기도 일원에 교회를 세웠고 병원과 교육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 감리교의 초기 선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 되었고, 1930년 조선감리회가 설립되기까지 미감리회, 남감리회 선교부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에 근대적 교육, 학문, 의학 등 분야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활발했으나 정교분리와 선교 위주의 정책으로 일제 침략에 대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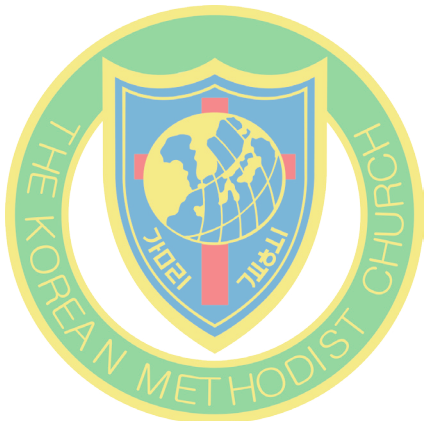
그렇다고 하여 감리교가 한국의 당시 사회의 문제 앞에 침묵만 한 것은 아니다. 독립협회 창립을 주도했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한영서원을 설립한 윤치호, 일본 침략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요청한 이승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감리 교인이 10명이나 되는 점은 사회 활동 참여에 관심을 두고 적극 개입하는 감리교 교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자, 한국 사회를 위해 큰일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결성되면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진보적인 발걸음을 보였는데,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한국문화, 종교들과의 연관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해석하고자 했던 토착화 신학 혹은 종교 신학의 토대를 놓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1931년에는 교직자 자격에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밝히며 최초로 여목사 제도를 수용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도 감리교는 이윤영 목사를 필두로 대사회적, 정치적 행보를 활발하게 펼쳤으며 제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6·25 이후 반공 활동과 교육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5공화국 때에는 과격한 저항을 자제하면서도 비민주적이고 비인격적인 정부의 탄압과 부정부패

에 대해 규탄하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일제 말기 일제의 정책에 의하여 조선의 모든 기독교가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되었었는데 해방 이후, 감리교는 재건을 위해 재건파, 복흥파로 나뉘어 전개되다가 1949년 기독교 조선감리회의의 이름으로 하나의 감리교회로 세워졌다. 다만 6·25 이후 감리교단은 당시 선출된 류형기 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분열되었으나 1969년에 다시 하나의 교단이 되는 과정도 있었으며, 1974년에도 4개 분파로 나뉘었다가 다시 1978년에 하나의 감리교단이 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었으며 1979년에는 66만 명의 감리교 성도가 파악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고 현재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약 120만 명의 성도로 집계되고 있다.



나가는 말

세계 개신교 8대 교파 중 하나인 감리교회는 한국에서도 장로교 다음으로 매우 큰 교세와 한국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별히 감리교의 특징이 있다면 감리교 신학과 교리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교리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실천에 매우 강조점을 둔 교단이다. 실천적인 삶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 간다는 그들의 신학의 특징처럼 사회적 문제 앞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지금도 이와 같은 영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뉴스로 종종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리교에 대해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동역하며 한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동반자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비록 감리교에 대해 소개하는 짧은 글이지만, 감리교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 불현동상

[참고자료]

1. 강돈구 외, 『한국종교교단 연구 VI』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 이진구,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파정체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2012), 《〈정교문화비평〉》 22호 (대한기독교서회)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199 나의 사랑하는 책

M. B. Williams 작사, C. D. Tillman 작곡:
〈통일 찬송가, 1983〉 234장

모태신앙인 저는 그저 부모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대 예배에서 뜻도 모르고 찬송가를 불렀었습니다.

초등학생일 때, 우연히 이 찬송가를 들었는데 초등학생인 저의 귀에도 가사가 쉽고 가슴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로 인해 거부감을 덜 느끼게 되었고 외우지 않았지만 저의 입에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 최미정 성도

이 찬송은 세계적인 부흥집회 때 즉석에서 작사·작곡되어 그 자리에서 불린 찬송이다.

1893년 어느 날, 윌리엄스(M. B. Williams) 목사와 찰스 틸만(Charles D. Tillman, 1861~1943) 목사가 설교자와 찬양자의 팀을 이루어,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그리스도인 사역자 대회」 'The World Convention of Christian Workers'를 인도하고 있었다. 이 찬송은 그날 모인 6천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 「찬송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신명기 31장 19절 이하)하는 집회를 갖던 중에 태어났다.

집회 도중 윌리엄스 목사는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내용과 맞는 찬송을 찾아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1887년에 32곡의 작곡집을 낸 바 있는 틸만 목사에게 적당한 찬송을 찾아 달라 부탁하였다. 그러자 틸만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지요. 그럼 제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199 나의 사랑하는 책
(통일 234)

M. B. Williams, 1921
There's a dear and precious Book
모여서부터 성경을 읽었으니 (영조 315)
C. D. Tillman, 1893
MY MOTHER'S BIBLE 7:11, D. REF.

위: G D^b - C B^b - A E^b - D

윌리엄스 목사는 평생 가지고 다니는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바라보다가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My Mother's Bible이라는 제목을 써 놓고 목상을 하였다. 이리하여 탄생한 가사에 틸만 목사가 작곡을 하여, 그 날 집회에서 직접 불렀던 것이다.

엘더킨(Elderkin)과 매카비(McCabe) 그리고 커크패트릭(Kirkpatrick) 등이 편집한 「잘 익은 밀 The Finest of the Wheat vol. 2, 1894~³⁰¹, 84장에 처음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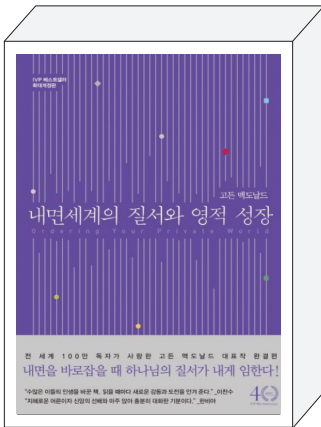
우리 찬송가에는 《신정 찬송가, 1931》 편찬 때, 로버트 콜먼(Robert H. Coleman)이 편찬한 미국 찬송가〈The American Hymnal, 1926 485장에서 번역·채택한 것³⁰²이다. | [출판동상](#)

³⁰¹ The Finest of the Wheat: Hymns New and Old, No. 2 For Missionary and Revival Meetings, and Sabbath Schools, Edited by Geo. D. Elderkin, for C. C. McCabe, Jno. Sweney, Wm. J. Kirkpatrick, 1894. 이 찬송가는 1~2~3 시리즈로 출판되었는데, 1권(1890), 2권(1894), 3권(1904), 1~2권 합본(1904)로 출판, 모두가 수백만 부가 팔린 유명한 찬송가이다.

³⁰² The American Hymnal for English Speaking People Everywhere, Compiled and Edited by Robert H. Coleman, Published by Broadman Press, Nashville, Tenn, Dallas, Texas, 1926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확대개정판]

“당신의 삶은 쫓기고 있는가?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 도서명: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 저 자: 고든 맥도날드

▶ 역 자: 홍화옥·김영희

▶ 출판사: MP

▶ 출간일: 2022년 11월 15일

| 목 차 |

— 들어가는 글: 한계에 부딪친 날

— 1부. 동기 부여

— 2부. 시간 사용

— 3부. 지혜와 지식

— 4부. 영적인 힘

— 5부. 회복

지나치게 분주하다. 일에서만 성취감을 느낀다. 심을 허락할 줄 모른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난관에 부딪치면 곧 무너진다.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을 옥죄며 전진할 뿐이다. 무언가에 쫓겨 다니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한다.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돌보며 지키는 일이 본분임을 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안식을 누릴 줄 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 성공지상주의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위한 처방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도처에서 속삭이는 오늘날,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내가 내달리는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는 시금석 같은 책이다. 저자 자신이 과거 쫓겨 다니는 삶을 살며 영적으로 붕괴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은 분주한 현대인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내면세계의 질서를 강조한다. 변화된 삶은 내면세계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사귀음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삶의 동기를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고, 영적인 힘과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심을 통해 내면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안내해 준다.

□ 노년의 지혜로 새롭게 고쳐 쓴 영적 일대기

실패를 딛고 일어선 굳건한 인격과 성경적 통찰력이 조화된 보기 드문 인물로 손꼽히는 저자는, 이번 확대 개정판에서 78세 일생을 회고하면서 좀 더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내용을 추가

하였다. 무질서한 소년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영적 싱크홀을 겪은 젊은 날에 이어 최근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경험까지 진솔한 고백과 사려 깊은 통찰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저자는 우정 관계에 관한 내용을 한 장 추가하였으며, 곳곳을 고쳐 썼기에 좀 더 숙성된 인생 향해의 나침반을 제공한다.

▣ 책 속의 PICK

내가 요한(과 이사야)에게서 들은 말은 이것이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내가 내면세계라고 부르거나 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또는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2쪽, 개정판에 부쳐

우리의 내면세계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인 영역이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로서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어야 하는 곳이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세상의 도덕적·영적 오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곳이다. -33쪽, 1장. 싱크홀 증후군

나는 이 시대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 하나는 개인의 내면세계라고 믿는다. 특히 자신을 실천적이거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고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싸움을 치러야 한다. 그들 중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이가 많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지쳐 있다. 그래서 싱크홀 같은 붕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가? ...내면세계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 채 공적 세계에만 치중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36쪽, 1장. 싱크홀 증후군

‘새로운 부르심을 원한다고? 이제 알았지? 남은 생애를 아버지의 음성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어라.’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다. ‘경쟁하지 마라.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그들을 지루하게 하지 마라. 너의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그냥 귀 기울이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질문을 받을 때) 너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복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준비를 하라.’ -123쪽, 5장. 부름받은 사람의 삶

수술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내면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분명한 단어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수술 하루인가 이틀 전에 그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 단어들은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곧바로 작동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용기, 감사, 깊이였다. -336쪽, 나가는 글 | 불렙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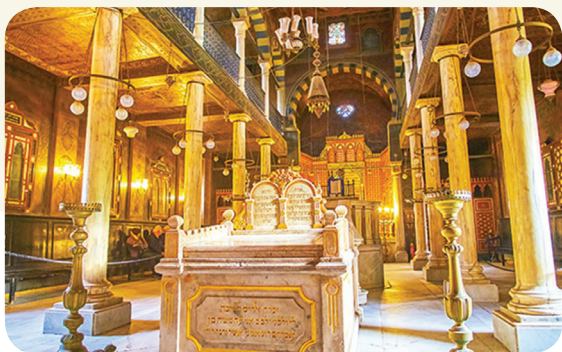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서평과 책 본문의 일부를 최무진 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성지순례 기행문)



이경희B 권사

우리 성지 순례단 29명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위하여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후 3시에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출발하여 8박 10일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인모 목사님이 지도교역자로 동행해 주셨고, 서인수 장로님이 단장을 맡아주셔서 은혜롭게 또 재미있게 힘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카이로에 도착 후, 첫날부터 매일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숨 가쁘게 하루 하루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아래의 기록은 주요 방문지 소개와 저의 느낌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나이 60이 넘었지만, 일행 중 제일 젊다고 기행문을 쓰도록 만장일치로 밀어주셔서 부득이 글솜씨 없는 제가 이 기행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부사르가 교회〉

1. 이집트에서

아부사르가 교회(아기 예수 피난 교회)는 예수님의 일가가 헤롯을 피해 얼마 동안 살던 곳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 내부에 고린도 양식으로 된 12개의 기둥이 있고 교회의 천장이 방주 모양으로 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콥트 교회 박물관에는 콥트 문화의 예술품이나 문서 조각, 도자기와 직물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콥트 미술은 고대 이집트의 미술과 그레코-로만(Greco-Roman)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소박하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콥트 정교회 신자들은 자녀들에게 손목 안쪽에 하늘색 십자가 문신을 새겨 믿음을 이어가게 하고 있었다. 이집트 내 그리스도교인 중에서 95%가 콥트 정교인이라고 한다.

왕들의 골짜기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약 천년 뒤 주전 1600년경에서 주전 1200년 동안 여러 왕의 묘소가 있는 골짜기로 이곳의 무덤들은 입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람세스 4세의 무덤에서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이고 기도처였던 것을 알려주는 벽화들이 있었다. 그 벽화들을 보면서 당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 온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생생



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유적을 보면서 나는 고대 강국이던 이집트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으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었다.

아침 5시에 버스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시나이반도를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걸어갔던 끝없는 광야, 시내 계곡, 반석에서 물이 나온 마라, 아멜렉과 전쟁한 르비딤 지역, 언약궤를 만든 싯김나무와 로댐 나무를 보았다. 지금까지 성경을 눈으로만 읽다가 광야 길을 직접 지나면서 보니 출애굽의 그 힘든 여정(旅程)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요르단 페트라〉

2. 요르단에서

요르단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와디럼인데 와디는 아랍어로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강이 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에는 마른 땅이 되는 강을 말한다. 와디럼은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역로 역할을 하였다.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영화 무대로 유명한 곳으로 지프투어를 하며 유목민들이 남겨놓은 암벽화도 보았다.



〈요르단 느보산〉

페트라는 입장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홍해와 사해 사이에 위치하고 동서 방향으로 모세 계곡(모세가 바위를 칠 때 물이 솟았었다는 곳 중의 하나)이 관통하고 있는 해

안단구 위에 건설된 도시이다. 페트라의 건물들은 바위산을 반쯤 깎아서 만들었고 좁은 통로와 수많은 협곡이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페트라는 나바테아인의 통치 밑에서 향료 교역의 중심지로 로마인들이 침입하여 점령한 후에 로마 제국 치하의 아라비아 지방에 편입되어 계속 번영하였으나 이슬람 제국이 그곳을 점령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곳은 사막지대이지만 2킬로미터나 되는 와디 무사에 있는 샘이나 여러 자연적 물을 끌어오는 수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페트라에서 몇 시간을 왕의대로를 쉼 없이 달려 해가 진 후에 아르는 골짜기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고대 모압과 아모리인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던 곳으로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경유하였다. 이곳은 지세가 가파르고 골짜기가 깊어 천연적인 경계선이 되고 있다.

요르단 마지막 날 마다바를 거쳐 느보산에 올랐다.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이 정복한 도시인 마다바는 암만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성경에 메드바로 일컬어지는 도시이다. 이곳은 아모리인의 땅으로 넓고 비옥하여 농사짓기 좋은 곳이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은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 올라갔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느보산은 요르단 고원 높이

솟아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요르단 남부와 성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사해와 여리고는 물론 맑은 날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감람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3. 여리고에서



〈여리고 삭개오 나무〉

이사야서 전체와 에스더서 제외한 구약 전권의 단편이 발견된 쿠파 동굴에서 인류의 중요한 유산인 사해 사본과 기록했던 도구 등 여러 가지 공동체의 유적들을 본 후 사해로 향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흘러 내려 모인 곳인데 서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요르단의 국경선을 이루고 있다. 사해에 직접 들어가 몸을 띄어 보며 30% 소금의 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리고는 동서, 상하 길에 있는 도시로 물이 풍부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요단 계곡의 서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해수면보다 250m 아래 있는 큰 도시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예수님

은 이곳에서 맹인의 눈을 눈뜨게 하시고 삭개
오를 만나셨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와 쓴물
을 달게 해주었다는 엘리사의 샘을 보았는데
아직도 그 샘에는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4.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텔단은 고대 이스라엘 북단에 있던 도시로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두로에서 다메섹
으로 가는 길 중 남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다.
요단강의 근원지로 흘러 들어오는 원류 중 단
의 샘이 가장 규모가 커서 이스라엘 물의 30%
가 단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한다. 단은 사사
시대 후에 만들어진 이름으로 여로보암 때 성
소를 마음대로 옮김으로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염소를 물에 던져 가라앉으면 제사를 받
은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곳에 이때 사
용한 염소 무덤이 있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
역하신 곳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팔복교회, 베
드로 수위권 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등이 자

리 잡고 있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 남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지역 중의 하나로 비옥
한 평야를 끼고 있다.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
한 지역이다. 예수께서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주
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니 이다”(마 16:16)라고 고백한 장소이다.
갈릴리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순례한 후 예수
님 당시의 어선을 재현하여 만든 배에 올라 성
찬식을 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갈릴리 선상에서 성찬식〉



〈가버나움 회당〉



〈텔 므깃도에서〉

예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가나를 거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의 성요셉 기념 교회를 순례한 후 엘리야의 영적 전투의 현장인 갈멜산, 솔로몬의 병거성인 므깃도 순례 후 가이사랴로 이동하였다.

텔 므깃도(아마겟돈)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규모가 크며 전망이 좋아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다. 므깃도는 고대부터 이스라엘 평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을 짓고 또 짓고 한 것이 20층이 된 곳으로, 전쟁이 많고 역사적인 아픔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 솔로몬 왕 때 지은 궁전터, 마구간, 곡물 저장용 창고, 수로 등을 볼 수 있었다.

가이사랴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고 있고, 헤롯이 만든 여러 궁전과 공공 건물, 원형 극장, 신전이 있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장소인 가이사랴는 헤롯이 자기를 위해 ‘가이사랴’란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음의 요충지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산〉

6.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의 산헤립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안으로 기혼 샘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이 포위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혼 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터널을 뚫어 만든 수로이다. 기혼 샘에서 출발하여 실로암 못까지 걸어서 40분 소요되는데, 우리는 어두컴컴한 터널 속을 손전등으로 밝히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길을 걸어가며 당시 이스라엘의 생생한 역사 현장을 체험했다.

시온산 주변에 마가의 다락방, 겿세마네 동산, 베드로 통곡교회가 모여 있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온산에 있는 다락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장소로 2층의 큰 방이다. 다락방 건물 아래층에 다윗왕의 가묘가 있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시온산의 남쪽 중턱에 있어 건너편에 감람산이 보였다. 예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 심문을 받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했다고 하여

그곳을 베드로 통곡교회라 한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예수님을 심문한 대제사장의 집터로 추정하며 지하의 동굴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 갇힌 감옥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교회 옆에는 예수님이 겐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왔던 계단이 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선고받고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성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무슬림의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다. 역사적인 일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무슬림 교도들이 그곳을 최고의 성지로 여기고 있어, 종교분쟁은 해결의 길이 묘연하다.

십자가의 길(Via Dolorosa[비아 돌로로사])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 무덤 교회가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를 말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였다. 이는 너무나 뜻깊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오래 기억되겠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다니느라 너무나 바빴고 힘들었다. 하지만, 주님의 걸어가신 자취를 눈으로 담으며 가슴속에 채워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큰 은혜이며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한다. | 불렙동상



〈십자가의 길〉

작은 에피소드들

1. 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경희A, 이경희B 권사가 영문 이름까지 같아서 컴퓨터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여 비행기 티켓 한 장만 예매가 되었다. 나는 일행과 떨어져서 외롭게 비행기를 타고 갔다.
2. 성지순례단 총무로 수고하신 송근배 장로님은 조용하고. 농담할 줄 모르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일행이 피곤할 때마다 터트리는 아재 개그로 유쾌한 여행이 되었다.
3. 와디럼 모래밭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이영*권사님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모두 모래밭을 파헤쳐서 결국 휴대전화를 찾아낼 수 있었다.
4.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몸살이 나서 4일 정도 몸살을 앓고 피로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

'찬송'을 왜 해야 하나요?

기독교 신앙관에 있어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의 내용에서 벗어날 경우 그릇된 신앙관이 되듯이 '찬송,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벗어날 경우 '찬송, 찬양'이 될 수가 없고, 이는 '일반 노래'나 '복음의 노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송, 찬양'관은 어떤 것인가? '찬송, 찬양'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는 올바른 '찬송, 찬양'의 신앙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정복 원로장로

1. 하나님께 드릴 '찬송, 찬양 등'

1) '찬송, 찬양'을 왜 해야 하나?

우리가 '찬송, 찬양'을 해야 하는 근거로는

- * “여호와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21, 시148:5)
- *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시 115:18, 시145:1, 2, 21, 시41:13) 등에 있다.

이 성경말씀의 내용에서

- ①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 찬양'을 드리기 위함에 있다.
- ② '찬송, 찬양'을 해야 하는 주체는 '너'가 아닌 '내'가 되어야 하고.
- ③ '찬송, 찬양'을 받을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즉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시148:5, 13, 시9:2, 신12:5, 11, 느9:5, 대상29:13).
- ④ 주님께서서는 '찬송, 찬양'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2) 하나님께 드릴 바른 '찬송, 찬양'은 어떤 것인가?

- ① '찬송, 찬양'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림에 있다'(시86:12, 시113:4, 시148:13, 사6:3, 고전10:31). 그럼에도 '찬송, 찬양'으로써 내 자신이 은혜나 복 받기를 바란다면 '찬송,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찬송, 찬양'이 되는 것이다.

- ② '찬송, 찬양'을 드려야 할 내용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 *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과 그의 거룩하심'(시 99:3, 시148:5, 13)
-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시107:8, 21, 31)
- * '그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단2:20)
- * '그의 은혜와 영광'(엡1:6)
- *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시150:2)
- * '주께서 행하시는 일'(시145:4)
- * '구원의 역사'(벧전1:3, 눅1:68-71, 시 68:19, 출15:2) 등이 되어야 한다.

그 예를 들어 보면

▶ 성경말씀 가운데에서는

- 출15:1-18(모세의 노래)
- 삼하22:1-51(다윗의 승전가)
- 대상29:10-19(다윗의 여호와께 감사 송축)
- 눅1:46-55(마리아 찬가)
- 눅2:28-32(시므온의 찬송)
- 계15:3-4(구원의 은총의 찬양) 등이 있고

▶ <찬송가>책 중에서는

- '거룩 거룩'(8장)
- '우리 하나님'(14장)
- '큰 영광중에 계신 주'(20장)
-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68장) 등이 있다.

③ '찬송, 찬양' 뒤에는 '아멘'을 하도록 하고 있다(시106:48, 느8:6, 시41:13, 시89:52, 롬1:25). 이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약속인 것이다.

④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

* '찬송하라' '송축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등의 ' ~ 하라, ~ 하여라' 는 하나님께서나 선지자들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라는 지시 또는 명령의 말임에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 ~ 하라, ~ 하여라'의 지시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이 되므로, 명령형으로 된 내용을 능동형으로 바꾸어 사용해야한다.

* 그리고, 노래하는 주체가 '자신에게'나 '너', '네가'로 표현된 곳도 많이 있다.

* 이들은 올바른 '찬송, 찬양'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 '찬송하라' '송축하라'를 ⇒ '찬송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찬양' 등으로,

- '사랑하라' '기뻐하라'를 ⇒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로,

- '하나님의 축복'을 ⇒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큰(크신)복'으로,

- '너' '네'를 ⇒ '나' '내' 등으로 수정하여, 올바른 '찬송, 찬양'이 되게 해야 한다.

* <참고> 다윗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온 회중은 이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로 대상에 맞게 이와 같이 명령형을 능동사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대상29:20).

3) '찬송'과 '찬양' 용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찬양, 송축, 찬미, 찬송시, 할렐루야 등』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노래'들과는 달리 『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칭송하고 뽐내며 기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사43:21, 출15:1, 21, 출18:10, 대상16:25, 시7:17 등).



2.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래’

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노래로서(신 31:22,30,창31:27) 부흥회나 사경회 등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나 은혜나 복을 받거나 선교하기 위한 것이 되며, 노래의 대상은 자기 자신,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등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는 의도의 노래인 것이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자(주체)가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고 ‘자신에게’나 ‘너’, ‘네가’ 될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래’에는 ①‘복음의 노래’ ②‘성경 말씀의 노래’ ③‘행사, 절기의 노래’로 구분할 수 있다.

1) ‘복음의 노래’

① 가사의 내용면으로 보아서

- 전도용으로는 : ‘이 기쁜 소식을’(185장), ‘예수 앞에 나오면’(287장), ‘구원으로 인도하는’(521장) 등
- 다짐으로는 : ‘이 몸의 소망 무언가’(488장), ‘갈보리 산위에’(150장) 등
- 간증으로는 : ‘만유의 왕 내 주께서’(151장) 등
- 권면으로는 : ‘신랑 되신 예수께서’(175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176장) 등
- 확신으로는 : ‘구주 예수 그리스도’(234장), ‘어려운 일 당할 때’(543장) 등
- 위로로는 :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235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606장)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② <찬송가>책 중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노래’에 해당하는 것이 40%를 더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경말씀의 노래’

- * 이는 성경 말씀에 노래 곡을 붙여 사람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기위한 것이며
- * 찬송가 중에서 ‘맘 가난한 사람’(427장), ‘내 너를 위하여’(311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588장),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2:7) 등이 있다.

3) ‘행사, 절기의 노래’

- * 행사나 절기를 맞아 이를 강조하거나 기념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되며
- * 찬송가 중에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580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559장) 등이 있다.

3. 제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에 있다(사43:21). 그러므로 그 올바른 ‘찬송, 찬양’의 주체는 ‘내’가 되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내용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과 그의 거룩하심’,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 ‘그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 ‘그의 은혜와 영광’과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주께서 행하시는 일’ 등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칭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올려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노래’나 ‘복음의 노래’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부흥회나 전도 집회 등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나 은혜나 복을 받거나 선교를 위한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 불행동상

과거는 미래에 의해 다시 쓰인다 [3]

물댄동산의 역사를 현재의 시점으로 새롭게 읽고, 더 나은 소망을 품으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연재되는 리뷰 글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더 깊이 연동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이든지 매달, 매주, 매일같이 저녁시간만 되면 TV나 비디오를 보는데 빠진다면 그런 신자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TV보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여유있는 시간이 아주 많이 생길 것이요 실제로 좀 더 깊은 인격을 갖춘 좀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를 요구하신다. 마냥 수동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기만을 원치 않으신다. 신자들의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교제하시길 원하신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는 단계를 4가지로 피동적 상태, 자기기만, 교만, 자기통제불능상태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말은 옳다고 본다.

96년 물댄동산 06호에 실린 청년1부 교사의 글
'오락에 나타난 세상의 영'(일부발췌)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미디어가 사회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하면서 사회 변화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90년대의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눈과 귀속으로 침투하는 미디어와 일 방향적이고 파괴적인 그 영향력을 죄로 직시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삶의 일상적 자료를 매개체로 하여 미디어의 활용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신앙적 변혁이다. 이처럼 미디어에 대한 신앙인의 과제가 다르더라도, 두 시대에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로 구비된 신앙을 구체화하고 현장 속으로 재현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더해 중요한 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때와 지금, 어제와 오늘,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아닐까. (물댄동산 편집부)

뉴미디어와 신앙생활

- 물댄동산 96년 청년1부 교사의 글을 읽고 -



이지원 청년

현재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오락에 나타난 세상의 영(1996, 박해욱)>이 출간된 1996년에는 TV와 라디오가 주된 미디어였다면, 2022년 현재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기존의 전통 매체 이외에도 태블릿PC, 랩탑, 스마트워치 등 개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디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

며, 찬양과 설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질 만큼 한국의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오직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집에서 TV 혹은 휴대폰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태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태도가 흐려지면 마음도 점차 멀어지는 법이다. 미디어 속 환경도 이와 같다. 성경 말씀, 다양한 찬양, 여러 목사님의 설교 영상 등 찾아보면 끝없이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앙적인 자료가 아닌 세상적인 정보로의 접근 또한 하나의 미디어 안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을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유혹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된다.

〈오락에 나타난 세상의 영(1996)〉에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던 대목은 미디어의 ‘수동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마냥 수동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기만을 원치 않으시며,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교제하시길 원하신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에서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모임을 통한 소통과 토론의 중요성

이 떠올랐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교회가 선교와 공동체의 선한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이 저자가 말한 ‘능동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능동성’이 미디어에서 이루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글에서 미디어를 ‘TV’로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TV는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를 소비자가 그대로 시청하기만 하고 피드백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향 매체’에 속한다.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이 그 당시의 대중 매체였다면, 현시대는 대중이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생산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쌍방향 매체’가 대중 매체로 자리 잡았다. 쌍방향 매체는 ‘뉴미디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정보 전달 수단에 더하여 커뮤니케이션(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며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신문, 블로그 등이 그 예시다.

온라인상의 ‘쌍방향 소통’의 시대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유하기’라고 말할 수 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영상 혹은 네이버와 같은 정보 검색 플랫폼의 기사, 블로그 글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소셜미디어의 특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

용하여 인상 깊었던 목사님과 신학자의 강연(유튜브 채널 ‘잘잘법 :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크리스천의 간증에 대한 영상, ‘마커스 워십’, ‘피아 워십’ 등 찬양단의 찬양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서로 공유하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말씀과 찬양, 그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쉽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에서는 ‘미디어 선교’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만든 계정을 ‘팔로우’하면,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고민들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풀어낸 글을 담은 게시물을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미디어만을 통해서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 또한 간절하면서도 강렬한 콘텐츠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많은 신앙적인 콘텐츠 또한 다소 간단하고 피상적인 면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글의 저자가 말했던 ‘사색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깊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깊이 동의한다.

미디어의 활용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첫째,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 중에 신앙적인 콘텐츠(설교 영상, 말씀에 관한 글, 찬양 등)를 소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한다.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에는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기 쉽다. 성경 앱에서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설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큐티, 말씀 묵상, 감사 기록 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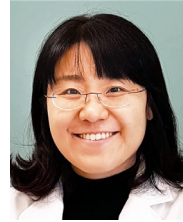
둘째,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쉽게 검색하고 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정보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말씀을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이단으로부터 온 정보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셋째,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미디어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은혜로운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불행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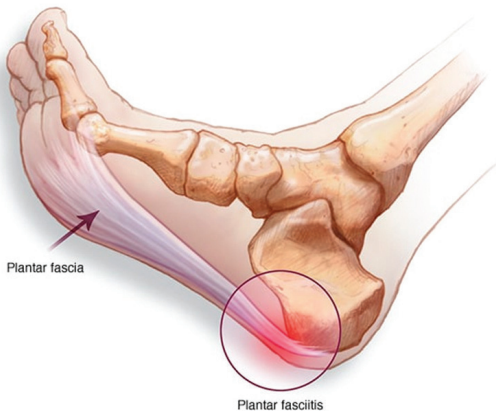
발뒤꿈치가 아파요

-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



서혜진 집사¹⁾

발은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서 묵묵히 곁은일을 도맡아 하는 충직한 집사와 같습니다. 서 있거나 이동할 때 항상 몸을 떠받치면서 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뭉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큰 충격을 받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몸을 상하지 않게 일을 감당합니다. 곁은일을 다 하지만 못생겼다, 냄새가 난다 등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 발.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통증도 흔하게 찾아오곤 합니다.



F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www.mayoclinic.org/diseases-conditions/plantar-fasciitis/symptoms-causes/syc-20354846

가장 많이 알려진 발바닥 통증 질환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입니다. 족저(발바닥) 근막(근육의 막 같은 구조물)은 발바닥 전체를

가로지르는 질긴 띠 같은 부분입니다. 발의 아치를 떠받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며,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나 생체역학적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변화로 인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오랜 시간, 먼 거리의 보행(예를 들면 여행, 등산, 둘레길 걷기, 파크골프 등), 달리기 등 갑작스러운 발의 부담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는 일을 하시는 분, 발의 구조적 변화(회내족, 요족 등)로 인한 생체역학적 이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뒤굽이나 안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거나 딱 죄는 신발을 신을 때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신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러운 체중의 증가가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첫발을 내디디는 순간 느껴지는 발뒤꿈치 아랫부분의 통증입니다. 통증은 찢어지는 듯 오기도 하고 저릿한 느낌, 뻣근한 느

1)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료선교부 실행위원

킴 등으로 찾아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쉬다가 일어서서 걸을 때 첫발을 내디딜 때도 비슷하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진단은 발뒤꿈치의 족저근막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상 족저근막의 두께가 반대 측보다 두꺼워져 있고 초음파 신호 강도가 줄어들었다면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통증의 위치가 비슷해서 감별해야 할 질환들로는 발꿈치패드 위축증(뒤꿈치의 지방이 빠지는 병), 아킬레스 힘줄염, 거골하관절염, 뒤꿈치뼈의 스트레스성골절, 발가락 힘줄염, 뒤꿈치 신경질환 등이 있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한 보행이나 뛰기 등을 줄이면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주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뒤굽이 조금 높은 신발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의 긴장을 줄여 주어 견디기가 수월해집니다. 신발 안 뒤꿈치 밑에 부드럽고 충격 흡수가 가능한 힐 컵을 깔아 주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체외충격파 치료로 상처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 테이핑, 발 보조기(깔창)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발이 잘 된다면 종아리 스트레칭 및 마사지, 발과 다리, 둔부 근육의 재활 운동치료를 병행합니다. 근막의 재생 능력이 다른 부위보다 느리고 지속적인 부담을 받다 보니 치유되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체의 재생능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좋아지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www.mayoclinic.org/diseases-conditions/plantar-fasciitis/multimedia/foot-stretches-to-prevent-plantar-fasciitis/img-20008230

발뒤꿈치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 불렙동상

우리 곁의 "심리학" [1]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1]

우울장애, 불안장애



양선미집사¹⁾



우리 곁의 "심리학" 3회를 거쳐 정신장애와 심리치료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재되는 글들을 통해 건강과 인간관계, 또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삶과 신앙의 균형까지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1부 :

우울장애, 불안장애

2.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2부 :

ADHD, 치매 / 심리평가 소개

3. 심리치료의 최신 흐름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질환(mental illness),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심리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나 문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 묻지 마 범죄와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제 이상심리는 더 이상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학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또 일반인 역시 이상심리 현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다.

1. 이상심리를 판별하는 기준

이상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단 하나의 공통된 정의는 없다. 비정상적인 행동, 즉 이상행동이나 이상심리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

1) 심리치료학 박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물댄동산 편집위원

유는 누군가를 이상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동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행동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의 5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주관적인 고통이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과 이상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어떤 경우는 주관적 고통이 심하지 않게 보이는 심리장애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적 부적응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발달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동화(assimilation)²⁾와 조절(accomodation)³⁾을 통해 자기가 처한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해 나간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특별히 적응이 어려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

셋째, 통계적 이탈이다.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감정,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문화적 규준의 위반이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 특유의 규칙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적·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은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위험성이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정상과 이상을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각각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고, 이 기준들이 완벽하게 정신질환이나 심리장애를 판단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 심리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내리거나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비합리성이나 예측 불가능성,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생물학적 지표 등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2.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공식 진단 분류 체계

현재까지 2개의 주요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WHO에 의해 공인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이다. ICD는 유럽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DSM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두 체계는 유

2)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을 기존의 도식(schemas)으로 이해하는 것. Piaget: 1896-1980

3) 어떤 도식을 새로운 정보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 Piaget: 1896-1980

사하면서도 다른 분류 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 분야와 임상 심리 분야는 미국의 DSM 진단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주로 DSM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3. DSM-5⁴⁾의 주요 진단 범주와 주요 하위 장애

①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⁵⁾) -주요우울장애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2주 정도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식욕과 체중 변화, 수면의 질 저하, 정신운동 활동의 변화, 에너지 저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집중력의 저하와 결정하기의 어려움,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또는 자살 생각이나 계획 및 시도 등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손상이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때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은 약 7%이며, 18-29세 집단에서 60세 이상의 집단보다 3배 이상 높다(APA, 2013⁶⁾). 초기 청소년기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1.5-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병할 수 있지만 사춘기 무렵이 되면 발병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진다. 우울 증상은 회복되면 기능 수준이 병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기도 한다. 단, 우울증과 함께 성격장애,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양극성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특히 사춘기에 발병하거나 정신병적 양상 혹은 양극성장애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 초기에는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가 이후에 양극성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②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

불안과 두려움은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생존에 매우 필요한 감정이다. 적당한 불안과 두려움은 생존 가치를 높여 준다. 그러나 불안이 너무 지나치다면 부적응적인 상태가 된다.

4) DSM-Ⅰ은 1952년에 처음 나왔고, 새로운 연구 결과와 임상적인 증거가 쌓일 때마다 개정판이 나왔다. DSM-Ⅰ부터 시작하여 Ⅱ, Ⅲ, Ⅳ, Ⅳ-TR을 거쳐 2013년 5월에 최신인 DSM-5까지 나왔다. 라틴어 숫자를 사용한 이전 판들과는 달리 DSM-5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DSM-5에는 20개 범주와 약 400여 개 이상의 정신장애가 있다.

5) DSM-5의 우울장애 범주 하위 장애로는 주요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파국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월경전 불쾌감장애가 있다.

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th edition (DSM-5)]. 권준수 외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2013년에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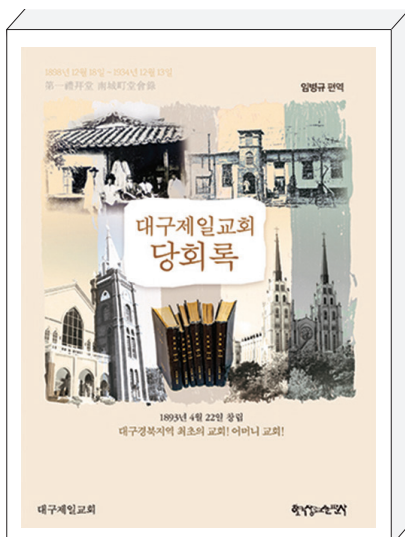
불안과 두려움은 생래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학습되고 조건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중립적인 자극이었지만 반복적으로 연합되면 다양한 종류의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외상이 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한다.

DSM에서 불안장애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명확한 증상을 공유한다. 불안장애는 여성에게 가장 흔한 장애이며, 남성에게도 두 번째로 흔한 장애다.

DSM-5의 불안장애 범주 하위 장애로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일반화된 불안장애가 있다.

심리장애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단숨에 어렵다. 필자 역시 20여 년간의 배움과 임상 현장 경험, 연구활동에도 심리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여전히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느낀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상심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복합적인 정신병리에 조금 이나마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상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장애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관련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불렙동상**

- 다음호에 계속



대구제일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대구제일교회 초기 당회록 발간

편역 : 임병규 장로

구입 문의 : 대구제일교회 사무실

☎ 053-253-2615

판매 금액 : 정가 25,000원

(대구제일교회 성도 : 10,000원)

청년이 추천하는 맛집

우리 교회 주변 핫플레이스 소개 [2]

지난 호에 이어 교회 주변에서 소모임 혹은 식사 교제를 할 때 함께 방문하기 좋은 카페 혹은 식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보다 즐겁고 은혜로운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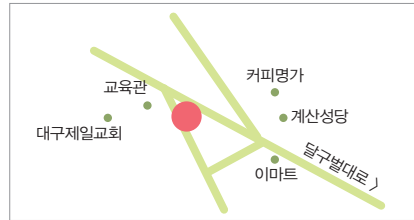


김원진 청년
(물단동산 편집위원)

윤유월 커피

디저트 카페
중구 국제보상로102길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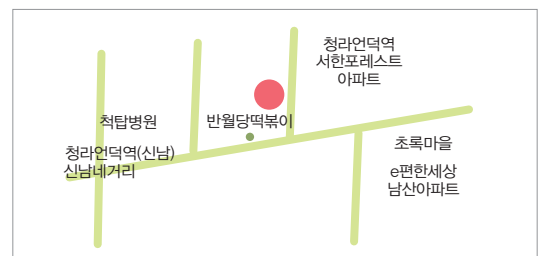
100주년 기념관 바로 앞에 위치한 작은 카페입니다. 테이블 좌석 수가 적어 여러명이 함께 방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은 인원끼리 조용하게 이야기 나누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겨울철에만 판매하는 딸기케익 정말 맛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눔을 원하신다면 윤유월커피를 적극 추천합니다.



굿데이마마

디저트 카페
중구 달구벌대로401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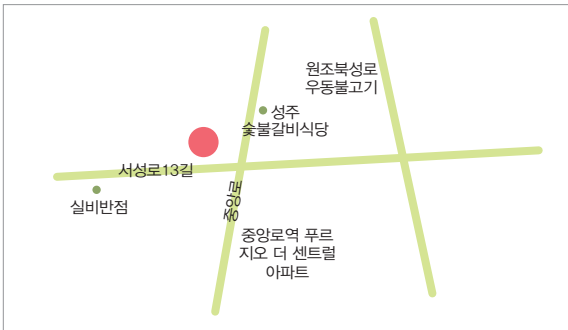
케이크가 맛있는 카페입니다. 특히 속인절미 케이크가 맛있어요. 공간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분위기라 방문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카페입니다. 청라언덕역 쪽에 위치하고 있어 교회랑은 걸어서 조금 거리가 되지만, 한번쯤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떼와 속인절미 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8번식당 본점

식당
대구 중구 서성로13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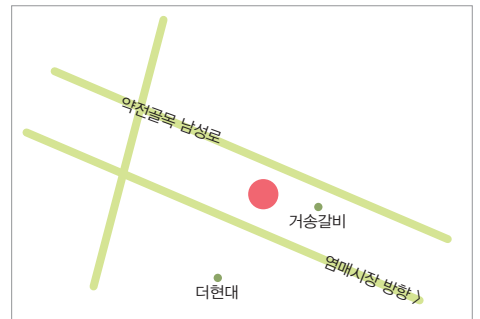
막창 순대로 유명한 식당이에요. 교회에서 걸어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예전부터 유명한 집이라 한 번쯤 방문해보기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막창 순대와 수육이 유명해서 둘 다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음식에 생소한 청년공동체 지체들끼리 방문해서 식사교제를 나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들인

식당
중구 남성로 36

초밥을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가격이 아담해서 단체로 방문은 어렵지만 종업원들이 친절하고 여러 스시나 덮밥을 맛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어덮밥과 모든 스시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메뉴들도 좋은 퀄리티로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대에 방문하면 조금의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서 방문하시길 바라요.



불렛등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